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석사 학위논문

접경지역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경기도 연천군을 사례지역으로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 전공

양 지 혜

접경지역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경기도 연천군을 사례지역으로 -

지도교수 김 태 형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학 전공
양 지 혜

양지혜의 도시계획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접경지역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에 임파워먼트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혼합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임파워먼트와 관광으로 인한 영향인식,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 간 정량적인 분석에 더하여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접경지역 거주민의 임파워먼트 수준 및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연천군 고랑포구 일대 마을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RETS(Resident Empowerment through Tourism Scale)를 적용하여 설계한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대상지에서 수행되는 관광활동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요인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회적 임파워먼트가 관광 영향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자긍심과 관련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긍정적인 관광 영향인식을 매개로 관광개발 지지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거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관광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방문자를 개인 수입으로 연결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였다. 안보관광은 해당 지역에서 수행되어온 특수한 관광의 형태로, 거주민들은 안보관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보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한편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생태자원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령화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관광산업에 대한 경험의 미흡 등은 정치적 임파워먼트와 관련하여 거주민 역량 개발 및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관광영향 인식과 관련하여 관광 부정적인 영향인식이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으로 인한 다른 측면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상쇄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후 관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평화관광 패러다임에 따른 지역주민 주도 관광육성의 필요성이 부상된 접경지역에서 관광 개발, 계획 실무자들에게 거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주요어 : 접경지역, 거주민 관광개발지지, 혼합연구방법론, 사회교환이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임파워먼트, 부분최소제공 구조방정식모형

학 번 : 2021-20870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4
제 2 장 이론 고찰	8
제 1 절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	8
1.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	8
제 2 절 사회교환이론	16
제 3 절 관광 임파워먼트	17
제 4 절 접경지역의 관광개발	21
1. 접경지역의 개발과 거주민	21
2. 접경지역 관광개발	25
제 3 장 연구 방법	33
제 1 절 연구 대상지	33
제 2 절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	36
제 3 절 혼합연구: 설명적 순차 설계	41
1.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PLS-SEM)	42
2. 심층인터뷰	48
제 4 장 연구 결과 및 해석	50
제 1 절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50
1. 기술통계	50
2. 모형 평가	51

3. 가설 검증 결과	58
제 2 절 심층인터뷰 분석	61
제 3 절 분석 결과 해석	67
제 5 장 결론	75
제 1 절 연구의 요약	77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79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80
참고문헌	81
Abstract	91

표 목 차

[표 1] SET 기반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영향요인	10
[표 2]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국내 연구	13
[표 3] 임파워먼트 정의	17
[표 4] RETS 잠재변수 및 측정변수	19
[표 5] 접경지역 이용을 위한 접근방법	22
[표 6] 접경지역의 개발 특성	24
[표 7] 안보관광자원	29
[표 8]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 관광연구	32
[표 9] 대상 지역의 주요 특성	35
[표 10] 관광개발 지지도, 관광영향 인식 측정 문항	44
[표 11] 개인적 경제적 이익 및 임파워먼트 측정 문항	45
[표 12]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47
[표 13] 잠재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0
[표 14] 내적신뢰도와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51
[표 15] Fornell-Larcker criterion 판별타당성 분석	53
[표 16] Heterotrait-MonotraitRatio(HTMT 비율) 판별타당성 분석	54
[표 17] 반영적 측정모델 평가 결과	55
[표 18] 변수간 상관관계 매트릭스	56
[표 19] 구조모형 결정계수(R^2)	57
[표 20] 구조모형 효과크기(f^2)	57
[표 21] 가설 검정 결과 요약	59
[표 22] 경로 계수 결과 요약	60
[표 23] 심층인터뷰 대상자 개요	61
[표 24] 심층인터뷰 결과	63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흐름도	7
[그림 2] RETS 구조모형	20
[그림 3] 연천군 지도	33
[그림 4] 연구모형 가설 경로도	36
[그림 5] 연구모형 분석 결과	58
[그림 6] 측정변수 외부가중치/적재치 및 경로효과 분석 ..	6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접경지역은 일반적인 의미로 ‘특정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정의에 따라 “1953년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하며,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에 속한다. 강원도의 6개 시군, 경기도의 7개 시군, 인천시의 2개의 시군이 접경지역에 속하며 이들은 모두 DMZ와 인접하거나 포함되어 있다(디엠지기, 2017).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 일원에서는 안보 및 지역의 발전, 통일평화기반 마련의 목적 등으로 관광개발이 수행되어왔다.

접경지역의 관광개발은 그 수행 주체와 목적이 변화되어왔다. 동 지역의 관광은 오랫동안 정부 기관과 같은 공식적 행위자에 의해 주도되어왔다(정광균, 2021). 접경지역의 관광은 1980년도 냉전 체제의 붕괴 및 이후 한반도의 화해, 대립 정세 변화에 따라 처음 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의 ‘안보관광’에서 현재의 ‘평화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점진적으로 전환되었다(정광균, 김남조, 2021). 평화관광은 전쟁 관련 자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안보관광에서 내용적, 공간적으로 확장되어 안보자원뿐 아니라 지역 고유의 생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이다(한국관광공사, 2019). 평화관광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관광개발에서 거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 발굴, 거주민과 관광객의 상호작용 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김지나, 2020). 즉 평화관광으로 접경지역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그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역주민 주도 관광 육성의 중요성이 함께 강화되었음을 시사

한다.

관광개발 지지도는 현재의 관광개발 혹은 미래의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동의 및 그를 위한 협조를 의미한다. 관광개발에 대한 거주민의 참여와 지지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정승훈, 2019). 관광개발은 거주민의 삶에 다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관광개발은 고용기회의 창출,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 문화의 보호 등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환경오염, 교통체증 증가, 거주민의 사생활 침해, 물가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관광개발에 대한 거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거주민들의 관광으로 인한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거주 수요를 충족시키고(Gautam, 2022), 동시에 환대감의 증진과 관광 콘텐츠의 다양화로 이어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Asmelash & Kumar, 2019). 지속가능한 관광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거주민의 참여와 지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임파워먼트가 있다(정영, 2021). Boley와 McGehee(2014)는 관광에 대한 지지에 대한 개인적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사회적·정치적 임파워먼트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인 RETS(Residents Empowerment through Tourism Scale)를 개발하였다. 이후 다양한 맥락의 사회에서 임파워먼트와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영향이 검증되었다(정영, 2021; Maruyama et al., 2016; Strzelecka et al., 201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의 시설 위주의 대규모 관광 정책에 따른 지속가능성 저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박경만, 2021)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임이 지적된다(정광균, 2021). 또한 접경지역을 배경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임파워먼트 정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접경지역의 맥락에서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임파워먼트의 수준과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관계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지로는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장남면과 백학면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역은 휴전선과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안보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이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 거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에 의한 관광개발 노력이 수행되고 있어 관광 임파워먼트 요인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다. 한편 연천군은 휴전선에 직접 접해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중첩된 규제하에 있는 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94.62%(639.95km²)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접경지역의 특성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혼합연구 방법론(Mixed Method)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거주민의 관광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온 이론적 틀 중 하나인 사회교환이론을 통해(Lee & Jan, 2019; Sharpley, 2014) 경제적 요인 및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임파워먼트 요인이 관광에 대한 거주민의 영향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접근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의견을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문화적인 맥락을 반영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량적 분석으로 밝혀진 현상의 이유를 밝히는 정성적 연구가 가치를 가질 수 있다(Boley et al., 2015). 따라서 정량적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접경지역 거주민들의 임파워먼트 경험, 그리고 관광개발로 인한 영향 및 관광지지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탐구하여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접경지역 거주민의 경제적 요인 및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임파워먼트 요인이 접경지역 거주민의 지역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교환이론을 기반으로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정량적 검증을 거쳐 잠재변수의 영향 여부 및 정도를 검정하고자 한다. 둘째, 심층인터뷰를 통해 각 요인에 대한 접경지역 거주민의 구체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량적 결과를 보충하여 대상지 거주민들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1)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참고문헌의 시간적 범위는 1975년부터 2022년이다. 실증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2년부터 9월부터 2023년 5월로, 정량적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조사 기간은 2022년 9월 2일부터 9월 28일이며, 심층인터뷰 기간은 2023년 5월~6월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반도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Control Line)에서 2km 남쪽으로 남방계선(Southern Limit Line: SLL)이 그어져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휴전선 이남 10km 내외에 민간인 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이 있다.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군사 활동의 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함부로 거주, 출입하거나 건축물 신·증축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정의에 따라 “1953년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군과 비무장지대 내의 집단취락지역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이 중 연천군의 경기도 DMZ 일원 발전종합계획(2021-2025)에서 인프라 조성이 계획된 연천군 고랑포구 고평팔경 풍류촌 일대면 중 백학면과 장남면이다. 본 연구는 소위 민북 마을이라 불리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쪽에 있는 집단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이 지역은 군에 의한 통제된 출입 및 행위 통제 및 조성과정의 역사적 배경 등 특수한 성격을 지니어(한모니까, 2020)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 수행 일자 기준 장남면, 연천군의 민통선 이남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DMZ 민간인 통제선과 접한 지역으로 비룡전망대, 제1땅굴, 1.21 침투로 등 안보관광자원뿐 아니라 경순왕릉, 연천고랑포구역사공원, 호로고루 등 역사,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를 시도하고 있는 지역으로, 안보관광에서 문화적, 역사적

자원의 활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평화관광의 한 사례지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는 거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관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남면의 경우 2014년 주민자치위원회의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거주민들이 직접 심은 해바라기를 소재로 한 통일 바라기 축제를 개최한 이후 매해 축제를 개최하여 방문객들을 유입하고 있으며 백학면은 백학면 주민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마을 여행사 ‘아침해 협동조합’ 및 경기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DMZ 백학문화 활용소가 백학면 및 인근 관광자원의 연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과 협약을 통해 운영하던 평화안보교육관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던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연천군의 경우 용진군과 함께 수도권과 인접하였다는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구 감소가 빠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행정안전부, 202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이기도 하다.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접경지역의 관광개발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거주민의 관광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 연구의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한다. 2장에서는 관광개발 지지도와 사회교환이론, 임파워먼트 등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핵심적인 개념을 고찰한다. 또한 대상 지역인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특성 및 거주민에 관한 연구 동향, 접경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하여 고찰한다. 3장에서는 연구 대상지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 뒤 연구 모형 및 가설, 그리고 혼합연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적 순차 설계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 부분 최소 제곱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정량적 방법을 먼저 설명한 뒤 심층인터뷰를 사용한 정성적 방법을 보인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 및 해석을 제시한다. 먼저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 모형의 통계적 검정을 시행한 후, 질적 자료를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접경지역 거주민의 임파워먼트 수준과 그것이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한다. 5장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요약 및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 과제를 논한다. 이러한 연구의 체계를 연구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I.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및 절차



II. 이론 고찰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	사회교환 이론	관광 임파워먼트	접경지역의 관광개발 특성	
			접경지역의 개발과 거주민	접경지역 관광 개발



I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지	혼합연구: 설명적 순차 설계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PLS-SEM)	심층인터뷰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응답자 기초통계	기술통계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분석 결과 해석



V.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의의	향후 연구

[그림 1] 연구 흐름도

제 2 장 이론 고찰

제 1 절 거주민의 관광개발지지

1.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

관광개발에 대한 거주민의 지지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Ribeiro, 2017). 관광개발은 해당 지역의 거주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Woo & Uysal, 2015). 거주민의 관광지지는 향후 관광 산업에 대한 반대 혹은 참여 등 행동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관광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박주영, 오상훈, 2019; Martín, 2018). 관광개발 지지도에 관한 연구는 서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비서구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활발하게 수행되었다(Lee, 2013). 생태관광(Nugroho & Numata, 2022), 세계문화유산관광, 농촌관광, 도시관광(Perdue et al., 1990; Rasoolimanesh et al., 2017), 대중관광, 대안관광(Nunkoo & Gursoy, 2019) 등 수행되는 관광의 종류 및 거주민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변수 설정을 통해 관광개발에 관한 지지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영향 요인을 탐구하는 다수의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을 기반으로 거주민의 관광에 대한 영향 인식을 통해 관광개발 지지도를 예측하였다. 사회교환이론을 사용하여 지역 맥락 하에 다양한 변수가 관광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사회교환이론을 연구의 틀로 설정하여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광개발 지지도를 예측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광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신동주와 강유진(2016)은 ‘강원도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대상지인 강원도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유리, 정성문, 강신겸(2017)는 도심관광지인 광주 양림동을 사례로 관광개발 지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는 대규모 개발이 발생

하여 오버투어리즘이 우려되는 지역뿐 아니라 대안 관광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지지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공을 위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됨을 시사한다.

[표 1] SET 기반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영향요인

저자	연구 목적	독립변수/ 매개변수	관광개발 지지 문항
Eslami et al., (2019)	말레이시아 랑카위를 대상으로 관광 영향 인식과 삶의 질 만족도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 평가	지역 애착, 관광의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 물질적·비물질적·전반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urism-based plans and development to sustain local sociocultural values and traditions - Cultural exchange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visitors - Promo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onservation - Tourism planning initiatives to develop local economy and local employment - Regulatory environmental standards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s of tourism - Tourism planning and development initiatives to promote local products
Gannon et al. (2021)	이란 도시 사례로 관광개발 지지와 영향요인 간 관계에서 거주민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지역애착, 환경적, 문화적 태도, 경제적 이익, 참여/거주민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residents should participate in tourism development conservation programmes of heritage sites - I believe that tourism should be actively encouraged in my community - I support tourism and would like to see it become an important part of my community - The local authorities and stat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promotion of tourism - It is important to develop plans to manage the conservation of historical sites and growth of tourism
Lee (2013)	대만을 사례로 비서구 주민들의 커뮤니티 애착, 커뮤니티	지역애착, 커뮤니티 참여,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support the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sustainable tourism initiatives - I participate in sustainable tourism-related plans and development - I participate in cultural exchange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visitors

	니티 참여, 인지된 혜택과 비용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지간 구조적 관계 분석	된 혜택,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cooperate with tourism planning and development initiatives - I anticipate i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onservation
Nugroho & Numata (2022)	인도네시아 국립공원 인근지역을 사례로 커뮤니티기반 관광의 초기단계 맥락, 주민 관광개발 지지 매커니즘 이해	지역사회 애착, 지역사회 참여, 인지된 혜택,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support community-based tourism in GCNP - I would like to see more tourists in GCNP - I support tourism having a vital role in this community - I believe that tourism should be actively encouraged in my community.
Nunkoo & Gursoy (2019)	모리셔스를 사례로 대중관광과 대안관광에서 정치적 신뢰가 거주민의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성과, 신뢰, 권위존중, 정치적 신뢰도, 인지된 혜택,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 for mass tourism: Attraction designed for large number of tourists, Large scale resort development, All-inclusive forms of tourism development - Support for alternative tourism: Nature-based tourism development, - Cultural & historical based attraction, Cultural folk events, Outdoor recreational programs
McGehee & Andereck	미국 12개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Perdue (2004)모델	인구통계 특성, 인지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urism can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es for a community - Additional tourism would help this community grow in the right direction-The tourism industry will continue to (or could) play a major

(2004)	을 기반으로 미시적 스케일에서 거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조사	인지된 혜택, 개인적 이익	<p>economic role in this comm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am happy and proud to see tourists coming to see what my community has to offer - I support tourism having a vital role in this community-Tourism holds great promise for my community's future - The tourism organization of my community's government should do more to promote tourism - I favor building new tourism facilities which will attract more tourists
Perdue et al. (1990)	미국 콜로라도 인근 커뮤니티 대상 농촌 거주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 및 인식된 영향이 추가적 관광개발 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분석	개인적 이익(통제), 거주민 특성,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인식/커뮤니티 미래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community should try to attract more tourists to this area
Rasooli manes het al. (2017)	농촌, 도시 여부에 따른 세계 유산 인근 거주민의 관광개발 영향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 관계 분석	커뮤니티 참여, 인지된 혜택, 인지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believe that tourism should be actively encouraged in my community. - I support tourism and would like to see it becomes an important part of my community. - The local authorities and stat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promotion of tourism. - Long-term planning by city officials can control the negative impacts of tourism on the environment.

관광개발 지지의 정의

관광 지지도의 대상은 관광프로그램, 관광정책, 관광개발 계획, 관광 관련 예산 확대, 관광 시설 추가적 개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관광개발이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관광자원의 가치 창조와 증대를 통해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과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수용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는 개발로 정의한다(강용석, 2021; 이석호, 최창규, 2016).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관광개발 지지는 현재의 관광개발 혹은 미래의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동의 및 그를 위한 협조로 정의한다. 다수의 관광개발의 지지도에 관한 연구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 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모호하게 사용된다(황경후 외, 2016).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 관광개발의 지지를 구분하지 않고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지도로 사용하는 문헌도 있고(고선영, 2021; 신동주, 강유진, 2016; 이상호, 2022; 정유리 외 2017; 정승훈, 2019), 관광개발의 지지와 태도를 구분하여 그 영향 관계를 탐구하는 문헌도 있다(박주영, 오상진, 2019; 한승훈, 윤동환, 2020). 강영애, 유광민, 김남조 (2012)는 태도와 지지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태도를 지지도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관광개발 영향 인식과 구분될 수 있는 구체적 개념으로서의 ‘지지도’를 사용하며 이를 “신규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 정도”라고 조작적 정의하였다. 본 연구가 접경지역에서 밝히고자 하는 관계에는 주민들의 관광 영향 인식과 관광에 대한 지지간 영향 관계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두 용어를 구분하고자 강영애 외(2012)의 연구와 같이 ‘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표 2]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국내 연구 및 사례지역

저자	연구 목적	사례지역	관광개발 지지도 정의
강영애 외 (2012)	생태관광 맥락에서 관광영향인식과 장소애착, 환경인식이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내 19개 국립공원 인근 읍면거주민	신규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 정도 지지도: 태도보다 포괄적이고, 영향인식과 구분될

			수 있는 구체적 개념
고선영 (2021)	제주도 관광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 따른 혼잡 지각, 거주 만족도, 추가적 관광개발 지지 관계 분석	제주도	향후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방문 지지
박주영, 오상훈 (2019)	제주 지역 주민이 인식하는 관광 영향, 지속적 개발에 대한 지지의사, 지역주민 태도 관계 분석	제주도	향후 제주지역의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신동주, 강유진 (2016)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의 지역에착도와 관광개발 영향인식, 관광개발 지지도 간의 관계 규명	강원도 정선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시	관광개발에 대해 나타내는 지역주민의 태도 변화로 개발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개발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한다는 생각 및 지역사회를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지 및 꾸준한 지지
정유리 외 (2017)	도시관광지 맥락에서 지역주민의 인구통계적 변인을 고려하여 개발 지지에 대한 태도 실증 분석	광주광역시, 양림동	지각된 개인의 혜택이나 지역의 혜택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어 관광개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
정승훈 (2014)	제주 발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유산관광 맥락 거주민 관광영향 인식과 거주민의 관광 지지간 관계 분석	제주도, 월정리, 김녕리, 선흘1리, 선흘2리	지역의 유산자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긍정적 편익을 인식하여, 경제, 사회 및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

정승훈 (2019)	제주도 관광개발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행정구역별 거주민의 인식 및 관광개발 지지와의 관계 분석	제주도	관광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수준
한석호, 유은정 (2022)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 지지도와 경제적 합리성, 비합리적 합리성의 구조적 관계 확인	충청북도 제천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및 지지 의사
한승훈, 윤동환 (2020)	광주광역시 지역 주민 지역에 대한 애착 정도와 이것이 사업에 대한 태도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광주광역시	관광개발 태도: 어등산관광개발에 대한 효과를 인식하는 수준 지지의사: 지역주민이 관광개발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
한진성 외 (2018)	제주도 거주민의 관광개발 영향 정도 및 이와 지속적 관광개발 지지도 간 관계, 지역애착도의 조절효과 분석	제주도 주민 밀집지역(연동, 노형동 및 이도2동)	지속적 관광개발 지지의사
황경후 외 (2016)	관광개발 시기에 차이를 두고 사회교환이론을 기반으로 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제주도 우도 면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변화로 개발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한다고 인식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 및 지속적인 지지

제 2 절 사회교환이론

관광개발에 대한 거주민들의 지지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된 이론적 틀 중 하나는 사회교환이론이다. 이는 개인 간, 집단 간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원 교환으로 인해 생성되는 지각된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때 해당 교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Blau, 1964). 관광은 고용기회의 확대, 지역 문화의 보존, 주민들의 여가 기회 제공, 자연환경 보존, 도로, 가로등과 같은 공공 인프라 개발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쓰레기 발생, 환경오염, 치안 악화,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회교환이론은 개인을 합리적인 개인으로 간주하여 관광이라는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평가를 수행하여 관광으로 인한 유익함이 더 크다고 보는 개인은 관광을 지지할 것이고, 비용을 더 크게 인식하는 개인은 관광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Nugroho & Numata, 2022). 이때 사회교환이론에서 지각된 편익과 비용은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만족스러운 편익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재학, 김성조, 2018; Blau, 1964). 이는 사회교환이론의 장점이기도 한데,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이론인 Doxey의 분노지수이론(irritation index)과 Butler(1980)의 관광목적지 수명주기 이론(tourism area life cycle)은 관광지 거주민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주민들의 개별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사회교환이론은 다양한 선행 요인이 비용과 편익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장모나, 2020; Nunkoo et al., 2013).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삶의 만족도, 임파워먼트, 관광에 대한 지식, 관광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지역에 대한 애착, 관광지의 생애주기, 관광에 대한 참여 강도 등이 연구되었으며, 이들은 비용과 편익 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용과 편익이 관광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 방향성을 상이하게 한다(Aleshinloye et al., 2022; Nugroho & Numata, 2022).

제 3 절 관광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관광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과학 문헌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분야마다 다르게 정의되며 가장 초기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Rappaport(1984)은 사람, 조직 및 커뮤니티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통제감을 얻는 과정으로의 임파워먼트를 제시하였다. 관광 분야에서 임파워먼트는 개인 및 집단에게 관광 현상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Aghazamani & Hunt, 2017).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서는 주민들이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Park et al., 2023). 임파워먼트의 연구는 관광을 통해 지역 거주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정은성 외, 2018; Cole, 2006).

[표 3] 임파워먼트 정의

저자	임파워먼트의 정의	분야
Aghazamani & Hunt (2017)	A multidimensional, context-dependent, and dynamic process that provides humans,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with greater agency, freedom, and capacity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s a function of engagement with the phenomenon of tourism	Tourism
Scheyvens (1999)	Local communities have some control over and sharing in the benefits of tourism initiatives in their own area	Tourism
Rappaport (1984)	A mechanism by which peopl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gain mastery over their lives	community psychology

임파워먼트 연구는 농촌 및 소외지역에서 관광에 대한 상향식 접근을 의미하는 지역사회기반 관광(CBT: Community Based Tourism)과 함께 다루어지면서 지역 거주민의 관광개발에의 참여에 대하여 밝히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임파워먼트 개념은 서구에서 제안되었으나 일본, 발리, 동유럽 국가와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도 거주민들의 관광에 참여와 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Dolezal와 Novelli(2022)는 하향식 의사결정 문화와 대규모 외부 투자라는 발리의 관광 맥락에서 지역 거주민의 참여와 임파워먼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권력이 거주민의 관광에서의 임파워먼트에 작용하는지, 어떻게 지역거주민을 객체에서 관광의 주체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Maruyama et al.(2016)은 일본의 오이즈미를 사례를 통해 브라질 이민자 문화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지역 사회관광에 있어 다차원의 임파워먼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색한다. 해당 연구는 일본을 배경으로 하며 일본의 하향식 스타일 거버넌스 및 소수 민족과 지배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의 이질적인 특성이 임파워먼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색하였다. Strzelecka et al.(2017)은 포스트 공산주의 동유럽 국가의 농촌사회에서 임파워먼트가 거주민의 관광에 대한 지지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낮은 수준의 참여 기회를 가졌던 역사적 경험이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정치적 임파워먼트를 저하하고 관광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였음을 시사한다.

Boley, McGehee, Perdue, and Long(2014)은 기존의 사회적 교환이론 기반의 관광 이해관계자 관련 연구가 지나치게 경제적인 동기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그는 거주민의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측정하는 다중 척도 모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WFSR (Weber's theory of formal and substantive rationality)과 사회 교환이론을 기반으로 임파워먼트를 측정한 기존의 RETS(Residents Empowerment through Tourism Scale)모형을 수정한 수정된 RETS를 제안하였다. WFSR을 결합함으로써 막스 베버의 합리성(Rationality) 중 형식적(formal) 합리성과 실질적(substantive)합리성을 통해 관광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형식적 합리성이란 경제적 이익과 같은 시장 이익을 의미하고 실질적 합리성은 비경제적, 가치적 동기를 의미하며 정서적 연대, 신뢰, 권력과 같은 비시장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Boley et al., 2014; Kalberg, 1980). WFSR는 관광 연구에서 농촌 관광과 같이 경제적 동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문화보호를 목적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광 맥락에서 사용되었다(McGehee, 2007; Strzelecka et a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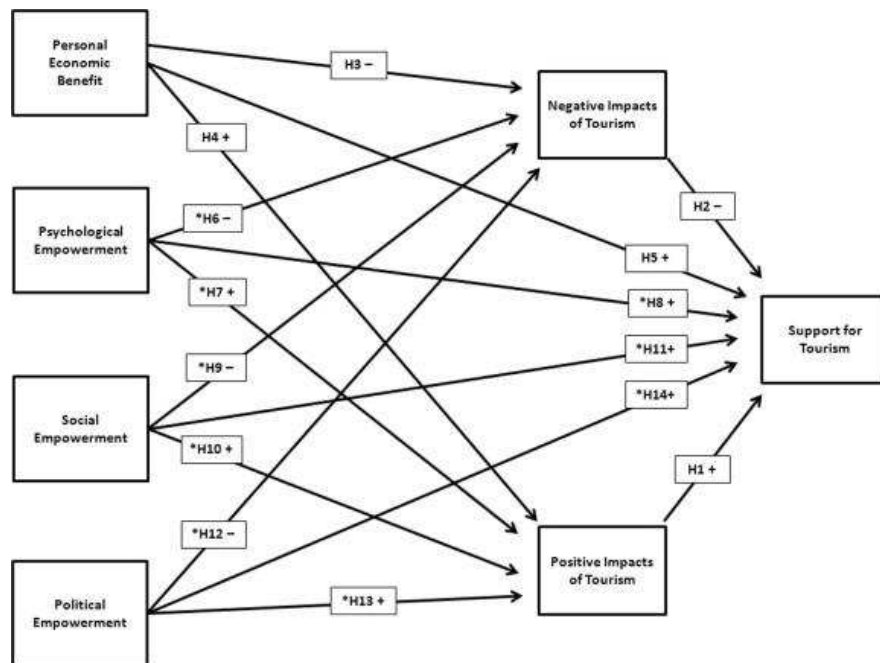
이 구조적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거주민들이 관광에 참여하는 경제적, 비경제적 동기를 모두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접경지역의 거주민들이 관광에 참여하는 이유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모델을 적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RETS를 구성하는 잠재변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회적 임파워먼트, 정치적 임파워먼트, 그리고 개인 경제적 이익이다.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임파워먼트는 실질적 합리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개인적 경제적 이익은 형식적 합리성을 반영한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지역사회 자원, 전통지식 등으로부터 고유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외부인의 반응 때문에 강화될 때 발생한다. 사회적 임파워먼트는 관광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를 위한 협력이 발생하면서 커뮤니티의 응집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임파워먼트는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이 자신이 공정하게 대표되고 관광개발에 있어 통제권이 부여된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익은 관광을 통한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혜택을 의미한다(Boley et al, 2014).

[표 4] RETS 잠재변수 및 측정변수

Scale	Item Description
Psychological Empowerment	Makes me proud to be a Floyd County Resident
	Makes me feel special because people travel to see my county's unique features
	Makes me want to tell others about what we have to offer in Floyd County
	Reminds me that I have a unique culture to share with visitors

	Makes me want to work to keep Floyd County special
Social Empowerment	Makes me feel more connected to my community
	Fosters a sense of 'community spirit' within me
	Provides ways for me to get involved in my community
	I have a voice in Floyd County tourism development decisions
Political Empowerment	I have access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hen it comes to tourism in Floyd County
	My vote makes a difference in how tourism is developed in Floyd County
	I have an outlet to share my concerns about tourism development in Floyd County
	Tourism in Floyd County helps me pay my bills
Personal Economic Benefit from Tourism	A portion of my income is tied to tourism in Floyd County
	I would economically benefit from more tourism development in Floyd County
	My family's economic future depends upon tourism in Floyd County

출처: Boley et al. (2014)



[그림 2] RETS 구조모형 (출처: Boley et al., 2014)

제 3 절 접경지역의 관광개발

1. 접경지역 개발과 거주민

관광개발은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방법 중 한 가지이다. 이에 접경지역의 관광개발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전략 및 개발의 목표, 그리고 거주민의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접경지역의 토지이용전략은 다차원적인 특성을 보인다. 박영철(1981)과 김홍배, 김영봉(2008)은 분단 후 개발 및 발전의 정체 및 접근의 통제라는 상황 하에 접경지역 이용에 관한 접근 방향에 대하여 다차원적으로 정리하였다. 크게 접경지역 개발 및 자원 활용과 군사 전략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개발 및 부존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는 한계지역적 접근과 생태론적 접근, 지역사회개발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와 지리적 고립성, 낮은 인구밀도, 지역경제의 낙후성 등 한계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어 지역의 개발에 있어 한계성을 고려하는 것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한편 규제로 인하여 인간의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쟁으로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복원되어 우수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개발적 접근은 거주민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개발의 기능은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경제적 기능은 주민 소득증대 도모를 의미하며 사회적 기능은 협동체제의 추진, 생산활동의 개선, 사회복지 향상, 교육적 기능은 인간 능력의 개발, 정치적 기능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정치환경의 조성을 의미하여(김홍배, 김영봉, 2008; 박영철, 1981) 접경지역 개발 전략에 있어 지역 거주민의 참여를 도모할 때 생활소득증대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측면의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 전략 및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측면에서는 군사 전략 및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측면에서는 군사전략적 접근, 통일론적 접근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접경지역 이용을 위한 접근방법

	접근방법 구분	내용	접경지역의 이용특성
부존자원 활용 및 지역개발	한계지역적 접근	-한계지역: 한계성을 띤 지 역으로서 자연자원 빈약, 지 리적 폐쇄성, 저조한 인구밀 도, 낮은 생산성과 이용도 등 특성을 가짐	-군사시설보호법에 의 한 규제에 따라 토지 이용 측면의 한계지역 전략 -지리적 고립성, 낮은 인구밀도, 정주환경의 낙후성
	생태론적 접근	-생태계: 산림, 하천 등 자연 생태계와 경작지 생태계, 초 지생태계 등 반자연생태계가 있으며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도시 생태계가 포함	-전쟁으로 인해 훼손 된 생태계가 군작전을 위한 통제와 경제활동 에 대한 규제로 우수 지역으로 회복되어 자 연생태계 복원현상에 연구할 수 있는 가치 보유
	지역사회 개발적 접근	- 지역주민 참여와 자발적 노력으로 공통의 욕구 해결 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도모	-접경지역은 남북한 군대의 대치 지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 다양한 측면에 서 부정적 영향을 받 은 미개발 낙후지역 -경제활동에 큰 제약
안보 및 통일기반	군사전략적 접근	-접경지역은 군사전략적 차 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 로 유사시, 평시 모두 고도의 군사작전이 수행충분한 군용 지의 확보와 군사작전 및 훈 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생산 활동 필요	-민간인 통제선 설치 -생산성보다 군사전략 적 차원의 지역개발전 략 모색 필요
	통일론적 접근	-남북한이 인적, 물적 교류 협력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여건	-현재의 수요뿐만 아니 라 미래 통일 국토의 수요에 대비한 국토통 합적 접근 필요

접경지역의 개발과 거주민의 역할

접경지역 개발의 특성 중 하나는 여러 목표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개발에는 지역 경제발전, 생태 보전, 남북 평화교류 기반 구축의 세 가지 목표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각각의 목표는 서로에 대하여 상충할 수 있어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박경만, 2021). 지역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군사적 통제와 개발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지역 낙후성에 대한 보상적인 개발 욕구가 존재한다(김상빈, 이원호, 2004). 접경지역은 안보의 가치 아래 다중의 규제에 의해 개발이 저해되어왔다. 그 결과 낙후된 거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이 주요 과제로 인지된다. 한편 오랜 기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으며 DMZ 지역의 생태계가 보전되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되는 등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박은진, 여인애, 2018).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공간의 역할이 있다(김영봉, 2017).

다양한 가치가 중첩된 접경지역 개발은 거주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수행된다.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거주민을 대하고,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의 운영될 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거주민은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박배균과 백일순(2019)은 접경지역의 개발에 있어 특히 안보적 가치와 경제발전 가치의 대립과 연계가 발생하는 공간임을 주목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국가적 스케일의 안보와 지방적 스케일의 경제적 이해관계 간 대립이 발생한다. 접경지역의 지방행위자는 안보와 군사적 이유로 강요된 경제활동의 기회 박탈이라는 피해의식을 표출하고 미래 기회 창출의 목적으로 경제 발전의 논리를 주요시하였다. 하지만 그 뿐 아니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에 의한 미시적 스케일에서 안보가 경제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새로운 형태의 안보와 경제 연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정부가 주도해온 거시적 개발정책으로 인해 접경지역 거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백재환, 김성민, 2018; 최성록, 2011). 초기 접경지역 정책은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하여 안보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수행되다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 ‘접경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서 지역의 거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및 남북의 교류로서의 공간으로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최성록(2011)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의 사업추진에도 지역 차원의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강원도 DMZ 일대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마을 수준의 사업추진 역량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DMZ 일대 주민들의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으며 추진기관과 주민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운영능력의 부족으로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그를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임을 밝혔다. 더욱이 거주민의 기대가 정부의 사업운영 목적과 달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함을 밝히며 사업을 위한 지역주민의 주체적 역할이 미약한 수준에 머무름을 보였다.

[표 6] 접경지역의 개발 특성

저자	연구 목적연구 목적	접경지역의 개발 특성
김상빈, 이원호 (2004)	경기도 접경지역에 적합한 독자적인 분석 틀 구축	- 개발규제로 인한 낙후성에 대한 보상적 개발 욕구 및 천연생태계의 보전 간 상충하는 욕구 존재
박은진, 여인애 (2018)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분석, 체계적 연구 시사점 도출	- 군사지역의 강한 규제에 의한 개발 저해가 지속되며 지역적 개발 욕구가 강화 - 높은 생물 다양성 보전 필요
백재환, 김성민 (2018)	경기도의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을 비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생활환경 분석	- 접경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생태, 평화 목표의 충돌, 생태자원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삶 고려 미흡 -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 주도적 거시정책은 기존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갈등 확대 가능
최성록 (2011)	강원도 DMZ 일대 주요 사업 개발, 지역주민 참여, 이해정도, 마을 수준 사업추진 역량 분석 후 대응방안 제시	- 여러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추진에도 지역 차원 고려가 충분치 않음 - 주민참여, 소득증대와 같은 참여적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필요

2. 접경지역 관광개발

접경지역 일원의 관광정책

본 장에서는 접경지역 일원의 관광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접경지역의 관광은 지정학적 특수성에 따라 공공 주도형, 정부 주도형의 개발이 수행되어왔다(정광균, 2021). 따라서 공공에 의해 수행된 정책을 검토하여 접경지역에서 수행되어 온 관광의 형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보고자 하는 관광정책의 시간적 범위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DMZ 발생 이후로 한다. 관광정책의 공간적 범위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한 DMZ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10개 시·군)을 함께 살펴본다. DMZ 민통선은 처음 지정되었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북상하였을 뿐 아니라, 민통선 이북지역은 물론 인근 10개 지자체 모두 군사적 목적으로 출입과 개발에 대한 규제 하에 있어왔고, 안보, 생태, 문화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위에서 접경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한 주요 관광 정책 및 그 목표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관광 개발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된 정책을 살펴본다. 국토 및 지역 개발정책과 연계된 법정계획인 국토종합계획,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 지역 계획에서 관광 분야 사업을 포함하는 개발정책을 포함한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 정책이 수행되었으나 이들은 상위의 정책을 따르므로 본 장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된 정책만을 고려하였다.

접경지역 일대에서 가장 먼저 관광정책의 대상이 된 곳은 판문점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전시장소로 관광지로 활용되었다. 1965년 3월 제14차 PATA(태평양 아시아 관광협회) 총회 참석 외국인에 대하여 판문점 방문을 허용하였다(정광균, 2021). 판문점의 관광지로의 운용은 1970년 교통부에서 수립하였으며, 당시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관광으로 계획되었다(국가기록원, 2023). 19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 임진각 관광지가 조성되었다. 1976년에 교통부, 국방부, 한국관광공사가 합동으

로 전적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개발의 기본 방침은 전사적 가치와 전쟁교훈에 대한 보존의 가치가 있고 주요 관광지와 인접하고 있어야 하며 국민 교육 활용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개발의 주관은 교통부가 맡고 1981년 내무부로 이양하여 사후 관리는 담당 시, 군에서 인수하여 담당하였다(김창현, 2003). 1987년 강원도 구철원읍 일대 민통선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제2땅굴을 비롯한 지역에 주차장, 급수시설, 도로 설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고석정 관광지 내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철의삼각전적관을 건립하였다. 1990년도에는 강원도 지역 8개 지구에 대하여 19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민통선 관광지 개발에 착수하였고, 1992년~1993년에는 금화, 평화의 댐 등에 대하여 관광 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을 추진하였다. 1993년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인 통제구역의 출입 통제를 완화하는 방침이 발표되고 1994년부터 접경지역 전망대가 명소화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안보관광을 대신할 말로 평화관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신애경, 이혁진, 2022). 2002년도 파주시와 육군1사단, 재향군인회가 공동으로 DMZ 일대를 안보 관광지로 개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12년부터 6대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중 하나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해오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 내의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를 연계하여 DMZ를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하고자 한다. 2019년에는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였다. 주요 관광 개발정책의 대상이 된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전쟁에 대한 교훈을 주는 안보관광자원 위주로 관광이 수행되다가 생태, 평화 등 소재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하면 국토에서 접경지역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별도의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권역 계획 및 관광 개발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교환되며 남북 간 관계가 변화하며 처음으로 접경지역이라는 단어가 등

장하고 해당 지역이 남북통일의 기반으로 개발, 관리되었다. 권역으로서는 여전히 수도권 권역으로 구분되었으나 휴전선 인접 지역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함이 명시되었다. 강원권의 경우 화천, 양구, 고성을 포함하는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루트 개발이 명시되었다. 이때 관광 분야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 강화 방안으로써 관광자원의 개발이 계획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거점으로서의 개발 및 개발과 생태계의 보전, 안보적 요소의 조화로운 관리가 추구되었다. 수도권 접경지역이 통일안보 및 생태관광 중심으로 육성되었으며, 강원권은 문화관광교류 거점으로 육성되었다. 평화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평화생태공원, 생태관광을 위한 동서 간 평화관광로 개발 등이 계획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교류 협력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비무장지대의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벨트를 조성하여 생태관광과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였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역 지정 추진을 통해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비무장지대 일대를 생태계,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생태·안보 관광지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는 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를 구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자원 보전 및 녹색 관광을 수행하기 위하여 DMZ 인근 안보·생태환경 체험 관광을 위해 접경지역 내 평화누리길의 조성과 남측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한 유네스코 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DMZ 생태관광벨트 조성 등 10개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서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기반 조성이라는 과제 하에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 를 위하여 DMZ 일원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평화 관광벨트 구축, DMZ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의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접경권 발전을 위하여 2011년 접경지역 발전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동년 7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 관광벨트 개발, 신성

장 사업 육성, 교통기반 확충, 특화지구 조성 등 접경지역의 발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2019년 2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었다. 8년간 변화된 국내외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DMZ 통일을 여는 길,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생태평화관광의 활성화를 포함한다.

접경지역의 관광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접경지역 일대의 관광은 판문점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적지, 땅굴, 전망대 등 안보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안보의 목적하에 수행되었고 이러한 안보, 평화의 중요성, 평화통일의 기반과 같은 목적은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정광균(2021)은 DMZ 일원지역의 관광정책 및 관광자원 개발과정이 안보, 생태, 역사문화로 정권의 변동에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심지어 남북 교류협력이 단절되더라도 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광정책과 관광자원 개발은 지속되며 발전하는 등 안보관광의 중심에서 생태관광, 평화관광, 역사·문화관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왔다(정광균, 2021).

또한 접경지역 일원의 관광은 안보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수행되는데, 이러한 안보관광자원은 민간인 통제선의 내부 혹은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접경지역 관광 수행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접경지역 관광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음이 제시되었다(정대영, 한석호, 2021). 안보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정치적인 불안에 따라 출입이 통제될 수 있는 등 공급이 불안정하고, 많은 안보관광자원이 군사시설이므로 민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고 군, 유엔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축산업의 비중이 높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변수가 많다(정대영, 서정욱, 2022). DMZ와 접경지역을 따라서 도보 관광을 수행하며 생태, 문화, 역사자원을 체험하는 디엠지 평화의 길 상품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에 따라 2019년 9월 19일부터 잠정 중단되었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중단 조치가 지속되다가 이후 또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2022년 다시 중단되는 등 간헐적으로 운영되었다(통일부, 2019). DMZ 관광의 중단 및 민통선 제한으로 인해 관련 업계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관광 재개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21).

[표 7] 안보관광자원

시군		관광지명
인천	옹진	백령도 OP, 연평도 포격전 전승기념관
	강화	강화제적봉평화전망대, 강화전쟁박물관
경기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김포함상공원
	파주	도라전망대, 제3땅굴, 해마루촌, 허준묘역, 오두산전망대
	연천	열쇠전망대, 상승전망대, 승전전망대, 태풍전망대, 121 침투로, 연강갤러리, 두루미관찰대
	평택	평택 안보공원
강원	철원	평화전망대, 제2땅굴, 철원근대문화유적센터, DMZ 생태평화공원, 백마고지 전적지
	화천	칠성전망대
	양구	을지전망대, 제4땅굴, 두타연
	고성	DMZ 박물관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방에 위치한 관광지는 진하게 표시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2022. 08)

접경지역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

접경지역의 정책에서 파악할 수 있듯 관광개발에 대한 접경지역의 패러다임은 ‘안보관광’에서 ‘평화관광’으로 전환되었다. ‘안보관광’과 ‘평화관광’의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고, 이러한 패러다임적 변화가 실제 접경지역의 관광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안보관광은 1987년 대통령 선거 공약인 통일안보관광권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1990년 안보관광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손기웅 외, 2011). 이때의 목적은 “DMZ 인접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한국전쟁 이후 방치된 전적지, 격전지, 전쟁잔해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서 전후 세대 및 외국 관광객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깨우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며, 날로 증대되는 국내외 관광객들

의 수요에 대비해 기반을 확충하고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손기웅 외, 2011).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안보관광을 “6·25 전적지와 민통선 일대에 잘 보존된 자연경관 및 전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전후 세대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특색있는 관광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이소현, 김병헌, 2015).

이러한 안보관광은 남북 간의 관계가 변화하며 ‘안보’라는 단어의 부정적 요소의 부각으로 인해 생태와 평화로 초점이 변화하였다. DMZ 관광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안보관광이라는 용어를 지속해서 사용하다가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관광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김창환, 2020). 평화관광이란 기존의 DMZ 관광이 공간적으로는 민통선 인근에 집중된 안보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이었던 것에 비하여 “DMZ가 보유한 역사, 생태, 문화 자원을 통하여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으로 공간적, 내용적 범위가 확대된 관광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정대영·서정욱, 2022; 한국관광공사, 2019). 이러한 평화관광은 다양화되는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접경지역이 분단 이후 쌓아왔던 ‘위험한 군사지역’이라는 고착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김지나, 조경진, 2019).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DMZ 지역의 관광 현상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수요자인 관광 주체인 관광객의 측면에서 DMZ 관광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연구 결과 DMZ 관광의 특성으로 목적지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평화, 생태, 통일 등 구체적인 관광의 형태보다 가치에 대한 인식이 우세하다는 것을 밝혔다(노희경, 2019; 박경열, 안희자, 2019).

또한, 공급자의 시각에서 관광 담론의 변화에 주목하여 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지나, 조경진(2019)은 철원지역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및 CONCOR 분석을 수행하여 평화 담론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 등 고유의 특성을 소재로 한 관광이 일어나기보다 DMZ라는 상징성만이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창환(2020)은 한반도 DMZ와 같은 냉전의 유산이자, 현재는 기능

하지 않는 베트남 DMZ의 관광 활용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한반도 DMZ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안보 관광지뿐 아니라 역사, 문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평화 관광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역의 서사 발굴(김창환, 2020),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의 상호 작용 증대(김지나, 2020), 거주민 역량 강화 지원(정대영, 서정욱, 2022) 등 지역 중심적 접근의 필요성을 밝혔다.

즉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지역의 고착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형태의 평화관광으로의 행태 전환보다는 명칭상의 재해석에 이르는 수준임이 지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 전략으로서 거주민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계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평화관광 패러다임 하의 이해관계자인 거주민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8]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 관광연구

저자	연구 목적	사례지 역	연구 방 법	접경지역 관광 특징
김지나 (2020)	접경지역의 지역 자 원 활용을 통한 진정 성 공유구조 탐색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철원군	문헌연 구, 신문 자료 분 석, 심층 인터뷰	- 평화관광은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해 주민이 공감 가능한 비전 필요 - ‘접경지역’이라는 정체성은 지역의 진정성을 해석하는 지배적인 관점이 되어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안보 중심의 획일적 관광 외 환경,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다 른 방식으로 지역적 가치를 깨닫고 생각의 긍정적 진정성 재구성 기대
김지나, 조경진 (2019)	포스트-안보관광으로 접경지역 관광 담론 변화 현상 효과 탐색	강원도 철원군	중심성, CONCOR 분석	-평화관광 개념의 불분명한 정의, 경험적 연구 부족, 평화관광의 명목상 반영 등으로 인하여 지역 고유 자원보다 DMZ 상징적 의미 강조되는 등 적극적 차원 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음 -주민 삶의 회복, 접경지역의 활성화 문제 포함 위해 지역 중심적 접근 보완 필요
김창환 (2020)	베트남 과거 DMZ의 관광 활용, 관리를 분 석하여 향후 한반도 DMZ 평화관광 활성 화 방안 모색	베트남 DMZ와 한반도 의 DMZ	문헌 조사, 현장답사	-DMZ관광은 안보관광에서 시작하여 ‘안보’라는 단어의 부정적 요소의 부각에 생태와 평화로 초점이 변화하였음 -안보 관광지 방문뿐 아니라 역사, 문화 자원 통해 평화 가치 실현 필요 - 소멸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억의 재생, 재구성, 지역의 서사 발굴 필요
노희경 (2019)	DMZ에 대한 인식 변 화 현상학적 분석, 통 일에 있어 DMZ관광 역할 제시	비무장 지대, DMZ	토픽모델 링	-DMZ와 비무장지대 관련 토픽모델링 결과 지역적으로 경기도, 강원도, 화천, 철원, 파주, 연천, 고성에서 상위 노출 빈도를 보임 -일반적 관광목적지와는 다르게 구체적 목적이나 형태가 정립되지 않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필요함
박경열, 안희자 (2019)	DMZ 관광 데이터 중 핵심 토픽을 도출하 고, 관광 주체의 관점 에서 인식적 함의 도출	DMZ, (+여행, 투어, 관광)	토픽 모 델링,	-관광목적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다양한 경험이 부족해 DMZ관광의 목적, 행태 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 -서부지역 등 일부에 한정된 DMZ관광을 전체 접경지역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간 및 지역 연계형 홍보, 마케팅 필요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장남면에서 미산면에 걸쳐 계획되는 연천군 관광 권역 제2 권역 중 고랑포구 일대에 위치한 연천군 장남면과 백학면을 대상지로 한다. 이 중 연천군 백학면과 장남면은 모두 DMZ를 마주하는 접경지역으로 2022년 현재까지도 휴전선과 인접한 일부 지역은 출입 영농만 접근 가능한 통제지역으로 남아있다.



[그림 4] 연천군 지도 (출처: 연천군청)

경기도 사회조사(2021)에 따르면 연천군은 해당 시군에 총 거주한 기간이 20년이 넘는 거주민의 비율(66.6%)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정주의식 역시 연천을 고향으로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86%로 1위이고, 거주지에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 역시 78%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8위이다. 경제활동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0.6%), 단순 노무 종사자(16.6%), 서비스 종사자(14.1%)의 순서로 상위를 구성하고 있다.

연천은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비전하에 지질, 생태, 역사문화, 농촌체험 등 소규모 대안 관광 전략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추진

하고 있다(박경만, 2021). 연천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비무장 지대 일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이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DMZ 세계유산까지 유네스코 유산을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여 관광개발을 수행 중이다(연천군, 2019). 이때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피하기 위해 6개의 관광 권역을 새로이 지정하여 개발할 예정에 있으며, 이중 장남면에서 미산면에 이르는 2권역은 역사, 문화 자원을 중점으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일대는 연천군의 안보관광자원인 비룡전망대, 1.21 침투로, 평화누리길 10코스 고랑포 길을 인근에 두고 있으며, 신라 경순왕릉, 송의정, 연천호로고루등고구려 3대성 등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DMZ, 안보관광과 연계하여 문화 역사 자원으로 그 내용적 범위를 확장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연천군 장남면은 연천군에서 문화특화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관광자원의 발굴 및 문화적 자산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고려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백학면과 장남면의 경우 거주민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공공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백학면은 경기도 문화특화지역(문화마을) 공모사업(2021)에 선정되어 DMZ 백학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남면 원당리는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 사업(2022)’을 추진 중이다. 장남면은 2014년 주민자치위원회의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통일바라기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장남면에 위치한 사적 제467호 호로고루성지를 배경으로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최로 이루어지며 장남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등 주민협의체와 군부대의 후원을 받아 수행된다. 백학면은 국정원과 협약을 맺고 평화안보교육관을 운영하며 방문객을 유치하며 주민운영수익사업을 운영해왔다. 2018년 국정원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백학면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 백학면 새마을 부녀회는 마을기업으로 등록하여 안보교육생 숙박 및 학마을 식당을 운영해왔다. 백학면은 또한 경기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DMZ 백학문화마을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호

국영웅정신계승 마을, 마을역사박물관 등 역사적 배경하에 기획전시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백학문화활용소를 공간적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부 거주민에 의해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하는 마을기업 사업 역시 수행되고 있었다. 디엠지 레클리스 협동조합은 2013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이 수행된 이후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색과 레클리스(군마)스토리의 발굴, 다문화 결혼 여성의 사회참여를 주요 컨셉으로 2015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아침해 협동조합은 제1땅굴, 상승전망대 등 안보 관련 자원, 경순왕릉, 호로그루 등 역사 관련 자원, 재인폭포 등 지질 관련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평화안보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마을 여행사이다.

두 지역은 연천군에서도 서부에 속하며 DMZ와 직접 접하고 있다는 유사한 지리적인 여건과 안보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이 주로 수행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거주민들에 의한 관광개발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 관광 목적지이다. 안보관광을 넘어 평화관광으로 관광 패러다임이 확장되며 거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유사한 세팅에서의 관광개발의 영향과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인식, 거주민의 역량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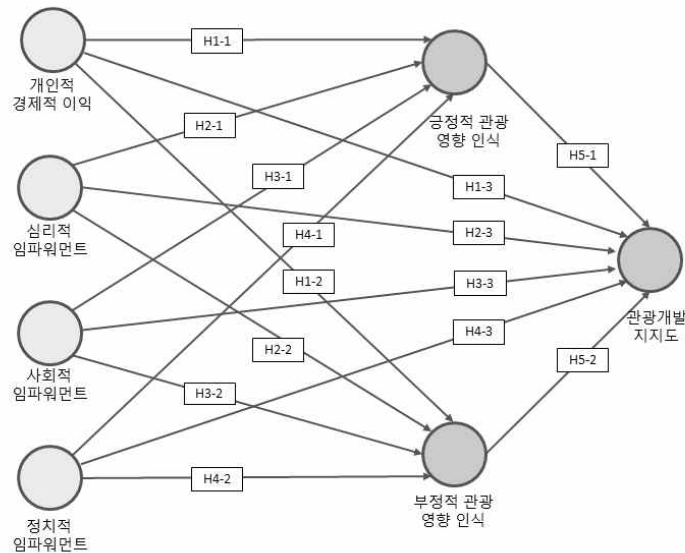
[표 9] 대상지역의 주요 특성

지역 구분	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주요 관광자원	비고
장남면	724명	0.38	연천 호로그루, 경순왕릉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승전전망대, 1.21 침투로 연천장남통일바라기 축제	경기도 접경 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 사업
백학면	2,527명	0.42	상승전망대, 박진장군묘 백학저수지, 학곡리 고인돌 3.1운동 만세운동 기념탑 평화안보교육관, 백학문화활용소, 백학역사박물관, 연천새둥지마을	DMZ 백학 문화마을 사업

제 2 절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1) 연구 모형

지속가능한 접경지역의 관광을 위하여서는 거주민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중요하다. 그러나 접경지역의 관광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거주민은 낙후된 경제 상황에 따른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안보 논리와 대립하는 집단 혹은 일방적으로 개발의 시혜자로서 다루어져 왔다. 접경지역의 거주민이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관광의 한 주체가 되기 위하여 관광산업에서 어떠한 임파워먼트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것이 전반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Boley et al(2014) 구조모형을 적용하여 개인적 경제적 이익,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회적 임파워먼트, 정치적 임파워먼트가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과 부정적 관광영향인식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과 부정적 관광영향인식은 개인적 경제적 이익,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회적 임파워먼트, 정치적 임파워먼트가 관광 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분석모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모형 가설 경로도

2) 가설 설정

개인적 경제적 이익

개인적 경제적 이익은 개인적인 차원의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익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차원의 경제적 이익은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과 정의 관계를,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과 부의 관계를 가지며 관광으로 인한 개인적 경제 이익이 높을수록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Perdue et al., 1990). 그러나 Boley et al. (2014)는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익과 긍정적,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였다. 한편 Gannon, Rasoolimanesh, and Taheri.(2021)은 관광지 거주민들의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이 관광개발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지는 않고, 다만 관광으로 인한 영향인식을 매개로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익이 접경지역에서 긍정적 관광 영향과 부정적 관광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가설 1-1, 1-2, 1-3을 설정하였다. 한반도의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되며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이웅규, 2018).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및 수도권 규제 등 토지규제로 인한 기초적인 산업 기반의 열악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는 고령화, 지역 소비 위축, 인구 감소를 일으켰고, 이것이 다시 재정 자립도의 약화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저해, 결국 지역 이미지 창출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오랫동안 경험하였다(안전행정부, 2011). 개인의 소득을 창출할만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접경지역에서 관광이 제공하는 소득 창출의 기회는 거주민들로 하여금 관광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개인적 경제적 이익이 높을수록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이 높을 것이다.

H1-2: 개인적 경제적 이익이 높을수록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이 낮을 것이다.

H1-3: 개인적 경제적 이익이 높을수록 관광개발 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소속된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에 대한 지식,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개인의 자긍심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Boley et al., 2014).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관광에 대한 영향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보이고자 하는 이미지가 개인의 가치와 일치될 때 관광개발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Strzelecka, Prince, and Boley(2021)은 농촌 자연 관광에서 자연과의 연결성이 거주민 임파워먼트와 관광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자연과의 높은 수준의 연결성을 가진 주민들의 경우 방문객 지역의 자연 자원의 아름다움을 인식함에 따라 자부심이 향상되어 관광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였다. Maruyama, Woosnam, and Boley(2016)는 일본 다문화 관광 지역에서 소수민족과 다수민족을 대상으로 RET를 수행하였는데, 소수집단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관광객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관광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전통적 직업에 종사하는 다수민족 거주민 일부는 제조업 도시에서 관광목적지로 도시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였다. 평화관광 패러다임 전환으로 접경지역 고유의 생태,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이 진행되며 이것이 관광으로 인한 거주민의 자긍심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관광의 부정적, 긍정적 영향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aruyama et al., 2016; Strzelecka et al., 2021)를 참조하여 가설 2-1, 2-2, 2-3을 설정하였다.

H2-1: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이 높을 것이다.

H2-2: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이 낮을 것이다.

H2-3: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관광개발 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사회적 임파워먼트

사회적 임파워먼트는 관광 활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서로 결속하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Boley et al., 2014). 관광을 통한 협력의 증가는 커뮤니티의 응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Boley & McGehee, 2014; Strzelecka et al., 2017). Strzelecka et al.(2017)은 폴란드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관광이 지역사회 결속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것이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접경지역에서 수행되는 거주민 대상 주민 역량 강화 공공사업의 시행은 주민 간 유대감과 소속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것이 관광 영향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거주민은 사회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관광 영향을 높게 인식하고 부정적인 관광의 영향을 낮게 인식한다는 선행연구(Boley et al., 2014)를 참조하여 가설 3-1과 3-2, 3-3을 설정하였다.

H3-1: 사회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이 높을 것이다.

H3-2: 사회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이 낮을 것이다.

H3-3: 사회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관광개발 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정치적 임파워먼트

정치적 임파워먼트는 일련의 관광개발 활동에 개인적, 조직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지는 등 발언권 등을 얻게 되어, 효능감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Boley et al., 2014). 정치적 임파워먼트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에서 지역주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정도가 충분한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는 지역주민이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인 주민참여와 유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주민참여는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연구된다. 김송이와 강영은(2019)은 감천문화

마을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관광객에 대한 주민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참여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였다. 이상호(2022)는 국내 관광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주민참여가 관광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관광지지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가짐을 나타내었다. 접경지역 관광에서의 주민주도적 관광의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 과정에 거주민의 실질적 참여 기회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간주하고, 선행연구에 따라 거주민이 관광개발 과정에서 정치적 효능감이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과 정의 관계를,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는 선행연구(Boley et al., 2014)를 참조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 H4-1: 정치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이 높을 것이다.
- H4-2: 정치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이 낮을 것이다.
- H4-3: 정치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관광개발 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관광개발의 긍정적/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선행요인에 따라 그 정도가 상이하지만 관광개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수의 사회교환이론을 틀로 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왔다(장모나, 2021, Nunkoo & So, 2016).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관광개발의 긍정적 영향을 높게 인식하는 거주민은 관광개발을 지지할 것이고 부정적 관광개발 영향, 즉 거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정도가 낮다(Lee, 2013; Boley et al., 2014). 관광 개발의 영향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가설 5-1 와 5-2를 설정하였다.

- H5-1: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개발 지지가 높을 것이다.
- H5-2: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개발 지지가 낮을 것이다.

제 3 절 혼합연구 방법론: 설명적 순차 설계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을 기반으로 접경지역 거주민의 관광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혼합연구 방법론(Mixed Method) 중 설명적 순차 설계 방식을 사용하여, PLS-SEM을 수행한 후 거주민 대상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양적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인다. 본 연구는 정량·정성적 접근을 통해 연구 대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혼합연구 방법론(Mixed Method)을 적용한다. 혼합연구 방법론은 연구 질문과 연구 가정에 대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두 가지 형태의 분석 결과를 혼합하여 제시하여 연구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Crosswell & Clark, 2018). 혼합연구 방법론은 양적, 질적 방법론을 혼합한 다양한 형태로 설계되며, Crosswell와 Clark (2018)은 세가지 주요 혼합연구 방법 연구설계로 수렴적 설계(The Convergent Design), 설명적 순차설계(The Explanatory Sequential Design), 탐색적 순차설계(The Exploratory Sequential Design)를 제시하였다. 수렴적 설계는 정량적 자료 분석의 결과와 정성적 자료 분석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여 문제에 대한 더욱 완전한 이해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설명적 순차설계는 서로 구분되는 두 단계로 구성되며 첫 단계에서 정량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수행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성적 연구가 수행된다. 탐색적 순차설계는 정성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정성적 연구의 결과는 정량적 연구를 위한 새로운 변수의 생성, 설문조사 도구의 설계, 중재(intervention)를 위한 활동이나 앱이나 웹사이트 등 개발의 기반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성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량적 자료의 해석을 보완하는 설명적 순차설계 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여 설문을 수행하여 임파워먼트 요인과 관광에 대한 영향 인식, 관광에 대한 지지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으나, 그 이면에 있는 맥락 등을 알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임파워먼트에 대한 측정도구는 서구 사회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다른 문화권에서 이러한 측정도구의 구성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Boley et al., 2015). 따라서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 지역의 문화의 맥락에서 자신들이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다고 혹은 낮다고 인식하는 이유 등을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설문지를 작성한 사람 중 일부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수행을 통해 양적 분석 결과의 저변에 존재하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거주민의 관광 지지에 대한 연구는 양적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Hadinejad, 2019) 이러한 혼합연구 방법론의 사용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PLS-SEM)

1)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PLS-SEM은 부분최소제곱 방법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구조적인 관계를 추정한다. 이는 OLS 회귀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반복적 수행을 통해 내생 잠재변수의 잔차와 잠재변수 간의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여 계수들을 추정하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잠재변수의 예측에 적합한 탐색적 성격의 분석 기법이다(신건권, 2018). PLS-SEM은 구성개념을 잘 대표한다는 가정 하에 잠재변수 당 측정변수의 수 1개 이상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Hair et al., 2011). 또한, 표본 크기가 제한적이고, 모델이 복잡한 경우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모집단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거나 투입 자료가 정규 분포를 띄지 않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Hair et al., 2019).

PLS-SEM은 반영적 모형과 형성적 모형 모두에 사용하기에 용이하며 예측, 설명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여 탐색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다(Hair et al., 2014)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맥락 하에서의 거주민 관광지지에 관한 연구는 이론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접경지역 거주민 관광 개발 지지와 임파워먼트 요인 간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PLS-SEM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PLS-SEM의 분석에는 PLS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Smart PLS 4 분석 도구를 활용하였다(Ringle et al., 2022).

2) 문항개발

본 연구에서는 접경지역 관광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광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 지각된 편익, 지각된 비용,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인식,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임파워먼트, 응답자 기초 특성에 대하여 측정 문항을 구축하였다. 이중 응답자 기초 특성을 제외한 측정 문항은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응답자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은 성별, 혼인여부, 직업은 범주형으로 구성하였고 연령과 거주기간은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2022년 8월에 5일간 수도권에 거주하는 20, 30대 일반인 38인을 편의모집하여 온라인설문을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였다. 또한 작성된 설문지의 문항 배열순서 등에 따라 측정항목들이 명확하게 전달되는지, 사용된 용어가 이해하기에 쉬운지를 파악하여 설문지를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관광개발 지지는 현재의 관광개발 혹은 미래의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 및 그를 위한 협조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관광에 대한 장려, 지역의 주요 사업 및 견인 사업으로서의 관광에 대한 찬성, 정부에 의한 관광개발 찬성으로 구성하였다(McGehee & Andereck, 2004; Nunkoo & So, 2016). 지각된 편익은 관광개발이 거주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의미하며 여가 기회 증가, 도로 공공시설 등 공공 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 거주민 소득, 삶의 수준 증가로 구성하였다(Boley et al., 2014; Nunkoo & So, 2016). 지각된 비용은 관광개발이 거주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로 교통문제, 쓰레기 발생으로 구성하였다(Nunkoo & So, 2016).

[표 10] 관광개발 지지도, 관광영향 인식 측정 문항

잠재변수	문항
관광개발 지지도	관광은 우리 지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한다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은 관광을 더 촉진시키는 활동을 해야 한다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거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가의 기회를 늘려준다
	공공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가져온다(도로, 공공시설 등)
	거주민의 소득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교통문제를 야기한다
	더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환경을 오염시킨다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경제적 동기와 거주민 임파워먼트를 통해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Boley et al.(2014)의 구조적 모델의 내용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개인 경제적 이익은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익으로, 본인의 수익 중 일부가 관광과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문화 자원, 역사 자원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접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으로(Scheyvens, 1999)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독특한 특징을 보러오는 것이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한다”,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혹은 유산을 알리고 싶다”, “계속 우리 지역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기를 원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Boley et al., 2014; Joo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의 특수한 관광 자원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에서 기인하는 주민의 자부심 향상 및 지역에 대한 특별함을 계속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임파워먼트는 지역에서 관광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거주민 간의 결속과 지역에의 소속

감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임파워먼트는 “내가 지역 사회와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한다”, “내 안의 공동체 정신을 고양시킨다”, “내가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등의 문항으로 질문되며 (Boley et al., 2014; Joo et al., 2020) 특히 관광 관련된 공동체를 구성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결속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지역의 고유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잃거나 개인, 기업간 관광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두고 경쟁이 극심해지는 경우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cheyvens, 1999).. 정치적 임파워먼트는 관광개발에 거주민이 참여하여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 관광개발 과정에 본인의 의사를 반영시킬 방안, 지역 관광부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광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항목,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Boley et al. 2014; Jung et al., 2018; Perdue, 2014).

[표 11] 개인적 경제적 이익 및 임파워먼트 측정 문항

잠재변수	문항
개인적 경제적 이익	나의 수입 중 일부는 우리 지역의 관광과 연관되어 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특수한 자원을 보기 위해 여행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 지역을 계속 특별하게 유지시키고 싶다
사회적 임파워먼트	나를 우리 지역과 더욱 연결되게 만든다
	나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고취시킨다
정치적 임파워먼트	지역의 관광개발 과정에 나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다
	지역의 관광부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는지 알고 있다
	지역의 관광개발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3) 데이터 수집

리커트형 7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 측정문항 16개와 인구통계학적 정보(연령, 성별, 직업, 혼인여부, 학력, 소득 수준, 거주기간)를 수집하기 위한 문항들이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대학원생 3인으로 구성된 조사원들이 2022년 9월 2일에서 2022년 9월 28일까지 고량포구 일대 지역을 방문하여 백학면, 장남면 등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면 소재지,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지역축제장소 등 거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여 편의표본추출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8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30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152부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PLS-SEM 모형의 표본 크기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10배수 법칙(Hair et al, 2017)에 따라 단일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지표들의 수 중 가장 큰 수에 10을 곱한 결과(본 연구에서 3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두 번째로 구조모델에서 특정 잠재변수로 향하는 경로의 가장 큰 수의 10배(본 연구에서 4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 역시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G*POWER 3.1.9.7 프로그램(Faul et al. 2009)을 이용하여 검정력(power)을 0.95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인 0.15, 유의수준 0.05로 설정하여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 146이 도출되었다(김선정, 정은영, 2015). 즉, 본 연구의 사례의 수인 152개는 연구 수행을 위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설문 조사 분석에 사용된 152명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분포는 여성 91명(59.9%), 남성 50명(32.9%)으로 분석되었고, 기혼인 응답자가 121명(76.1%)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평균 연령은 64.0세, 평균 거주기간은 31.8년이었고, 직업별 분포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43명(28.3%)으로 가장 높아 농업 및 목축업 등 일차 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임이 반영되었으며 그 뒤를 주부(19.7%), 사무종사자(11.8)가 이었다.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및 학생의 응답은 부재하였다.

[표 12]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단위: 명(%)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50(32.9%)	혼인 여부	기혼	121(76.1%)
	여성	91(59.9%)		기타혼인	10(6.3%)
	무응답	11(7.2%)		무응답	21(13.2%)
계		152(100.0%)	계		152(100.0%)
구분		값(단위)	구분		값(단위)
평균 연령		64.0(세)	평균 거주기간		31.8(년)
구분					빈도(%)
직업	1. 관리자				4(2.6%)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6.6%)
	3. 사무종사자				18(11.8%)
	4.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6.6%)
	5. 농림, 어업 종사자				43(28.3%)
	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7%)
	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0%)
	8. 단순 노무 종사자				3(2.0%)
	9. 학생				0(0.0%)
	10. 주부				30(19.7%)
	11. 무직				16(10.5%)
	12. 기타(구체적으로 작성)				3(2.0%)
	무응답				14(9.2%)
계					152(100.0%)

2. 심층인터뷰

정량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이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에 응답한 집단 중 마을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관광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거주민 및 지역 관광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외부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량적 분석의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분석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던 부분의 파악을 기대할 수 있다(박종문 외, 2019). 심층인터뷰는 2023년 5월~6월 중에 수행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에게 미리 전화 혹은 이메일로 질문 내용 및 인터뷰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대상자가 선호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대면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A1과의 인터뷰는 전화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거주민인 주민자치회 임원, 부녀회장, 마을 여행사 대표, 마을 협동조합 참여자, 지역 공무원, 문화관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1시간 내외의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민자치회 임원과 부녀회장, 백학면과 장남면의 문화관광자원을 주 소재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여행사, 마을기업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거주민과 같은 지역 거주민을 잘 알고, 설명해줄 수 있는 거주민을 중심으로 인터뷰 대상을 구성하였다. 또한 거주민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단위에서 지역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백학면에 소재한 백학문화마을 사업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해당 축제는 주민단체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며, 백학문화마을은 백학면의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외부에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관광에 대한 거주민의 임파워먼트 수준 및 거주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해석을 보완할 수 있다. 주요 질문 내용으로는 개인적 경제적 이익, 심리적·사회적·정치적 임파워먼트,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등 각 요인에 대한 인식, 개인이 관광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지역 주민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관광 참여 이후의 변화 및 어려움 등을 질문하여 구조방정

식의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관광개발이 수행될 경우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점이 나빠질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관광객이 방문하였을 때 보여주고자 하는 지역의 이미지와 지역의 핵심 관광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관광에의 참여로 인한 지역에 대한 소속감 변화 여부가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관광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 및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공청회 등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지), 관광개발에 대한 역량 수준 및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평화관광과 안보관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미리 준비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하되 인터뷰 과정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질문을 함께 물어보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 뒤 전문 녹취되었으며 질적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혼합연구에서의 질적 데이터 분석방법은 Creswell & Clark(2018)에 의해 제시된 방법을 기반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녹취된 내용을 모두 반복적으로 들은 뒤 문서 파일로 전사한 뒤 인터뷰 시 기록하였던 메모와 현장 노트 등을 리뷰하며 자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후 주요한 개념으로 나누고, 코드 라벨을 부여한 뒤 범주화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및 해석

제 1 절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 기술통계

분석에 사용된 잠재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관광개발지지,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사회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비교적 높은 응답을 받았고,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정치적 임파워먼트는 보통의 수준, 그리고 개인적 경제적 이익은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잠재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잠재변수	관광개발지지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개인적 경제적 이익	사회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	정치적 임파워먼트
평균	5.36	5.21	4.80	2.93	5.48	5.06	3.59
표준편차	1.61	1.69	1.82	2.11	1.55	1.81	1.94

2. 모형 평가

1) 외부모형의 평가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반영적 지표로 구성된 반영 지표 모형이다. 반영 지표 모형의 외부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내적신뢰도와 집중타당성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였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보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CR(rho_c)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alpha는 부정적 관광영향인식을 제외하고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수준을 보였다. 부정적 관광영향인식은 0.669의 값을 보였으며, 탐색적 연구에서는 0.6의 값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CR(Composite Reliability)은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기준치 0.70을 모두 상회하여 값을 보여 내적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Hair et al. 2019). 0.95 이상의 CR값은 의미적으로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 제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Hair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모든 CR값이 0.7이상 0.95이하의 값을 보였다. 표준화된 요인적재량(outer loading)는 0.708 이상일 경우 수용가능하고,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의 일반적인 수용기준은 0.50 이상이며, 이에 따라 본 데이터는 타당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Hair et al., 2019).

[표 14] 내적신뢰도와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잠재변수	문항	요인 적재 량	크론 바하 α	CR (rho _c)	AVE
관광개발 지지	우리 지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한다	0.930	0.799	0.908	0.832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은 관광을 더 촉진시키는 활동을 해야한다	0.893			
긍정적 관광	거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가의 기회를 늘려준다	0.788	0.744	0.854	0.662

영향 인식	공공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가져온다(도로, 공공시설 등)	0.772			
	거주민의 소득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0.877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교통문제를 야기한다	0.827	0.669	0.856	0.748
	더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0.902			
개인적 경제적 이익	나의 수입 중 일부는 우리 지역의 관광과 연관되어 있다	1.000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특수한 자원을 보기 위해 여행온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0.891	0.828	0.918	0.849
	우리 지역을 계속 특별하게 유지시키고 싶다	0.951			
사회적 임파워먼트	나를 우리 지역과 더욱 연결되게 만든다	1.000			
정치적 임파워먼트	지역의 관광개발 과정에 나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다	0.877	0.860	0.912	0.775
	지역의 관광부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는지 알고 있다	0.861			
	지역의 관광개발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0.903			

모형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Fornell-Larcker(1981)가 제시한 각 구성요소의 AVE 제곱근과 잠재변수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가 상관관계가 AVE 제곱근보다 작았다. 추가적으로 HTMT 상관 비율 검정을 적용하여 확인한 결과, HTMT값이 0.90 (더 보수적인 기준인 0.85 역시 충족하였음)의 임계치를 넘는 값이 나타나지 않아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Henseler et al., 2015).

[표 15] Fornell-Larcker criterion 판별타당성 분석

	관광 개발 지지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개인적 경제적 이익	심리적 임파워 먼트	사회적 임파워 먼트	정치적 임파워 먼트
관광 개발 지지	0.912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0.662	0.814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0.105	0.130	0.865				
개인적 경제적 이익	0.147	0.069	-0.073	1.000			
심리적 임파워 먼트	0.509	0.500	0.163	0.206	0.921		
사회적 임파워 먼트	0.538	0.457	-0.057	0.335	0.684	1.000	
정치적 임파워 먼트	0.255	0.277	-0.067	0.421	0.247	0.393	0.880

*진하게 표시된 값은 AVE의 제곱근임

[표 16] Heterotrait-MonotraitRatio(HTMT 비율) 판별타당성 분석

	관광 개발 지지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부정적 관광영 향 인식	개인적 경제적 이익	심리적 임파워 먼트	사회적 임파워 먼트	정치적 임파워 먼트
관광개발 지지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0.835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0.151	0.231					
개인적 경 제적 이익	0.164	0.086	0.085				
심리적 임파워먼트	0.612	0.621	0.206	0.220			
사회적 임파워먼트	0.599	0.529	0.065	0.335	0.752		
정치적 임파워먼트	0.281	0.317	0.118	0.456	0.271	0.403	

집중타당도, 내적일관성신뢰도, 판별타당도 평가 결과 모형이 모든 조건의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다만 사회적 임파워먼트의 측정변수 social empt.1의 VIF값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6.850) 이를 제거하여도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거 후 아래와 같이 최종적인 측정 모델을 완성하였다.

[표 17] 반영적 측정모델 평가 결과

잠재변수	측정 변수	집중타당도		내적일관성신뢰도		판별타당도	다중공선성
		요인적재량	AVE	Cronbach's Alpha	CR(rho_c)	HTMT	VIF
		> 0.708	> 0.50	> 0.70	0.60~0.95	신뢰구간에 1을 포함 하지 않음	< 3.00
관광개발 지지	sup.1	0.930	0.832	0.799	0.908	Yes	1.797
	sup.2	0.883					1.797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pos.1	0.788	0.662	0.744	0.854	Yes	1.562
	pos.2	0.772					1.356
	pos.3	0.877					1.771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neg.1	0.827	0.748	0.669	0.856	Yes	1.338
	neg.2	0.902					1.338
개인적 경제적 이익	pers.econ	1.000				Yes	1.000
심리적 임파워먼트	psycho. empt,1	0.891	0.849	0.828	0.918	Yes	1.994
	psycho. empt,2	0.951					1.994
사회적 임파워먼트	social empt.1	1.000				Yes	1.000
정치적 임파워먼트	pol. empt.1	0.877	0.775	0.860	0.912	yes	2.174
	pol. empt.2	0.861					2.432
	pol. empt.3	0.903					2.023

2) 동일방법편의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동일시점의 자기보고방식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어,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의 검증을 수행한 결과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Kock & Lynn (2012)이 제시한 완전공선성(full collinearity) 검정을 통해 분산팽창계수를 구하여 그 값이 3.3 이하로 나타날 경우 해당 모델은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완전 공선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든 분산팽창계수가 3.3 이하로 나타났다(Kock, 2015). 또한, 구성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하였을 때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0.9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거나(Pavlou et al., 2007), 본 상관관계 매트릭스에서는 0.9 이상의 높은 값을 확인할 수 없고 가장 높은 상관계수가 0.666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8] 변수간 상관관계 매트릭스

	관광 개발 지지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개인적 경제적 이익	심리적 임과위 먼트	사회적 임과위 먼트	정치적 임과위 먼트
관광 개발 지지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0.662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0.105	0.130					
개인적 경제적 이익	0.147	0.069	-0.073				
심리적 임과위먼트	0.509	0.500	0.163	0.206			
사회적 임과위먼트	0.538	0.457	-0.057	0.335	0.684		
정치적 임과위먼트	0.255	0.277	-0.067	0.421	0.247	0.393	

3) 구조모형 평가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결정계수를 기준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관광개발지지(0.514),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0.304), 부정적인 영향 인식(0.083)순으로, 이는 각각 중간 수준, 중간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 매우 약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졌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Hair et al, 2011). Q^2 값은 내생적 잠재변수들이 해당 construct들에 대한 경로모델의 예측적 적합성(predictive relevance)을 의미한다. Q^2 값이 음수인 경우 예측적 적합성의 증거가 없다고 간주된다. SmartPLS 4의 PLSpredict(k=10)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음수인 값이 나오지 않아 구조모형의 내생 잠재변수에 대한 예측 적합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Chin(1998)은 f^2 가 0.02, 0.15, 0.35일 때 작은 효과, 중간 수준의 효과,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관광개발 지지에는 긍정적인 영향 인식이 0.358로 가장 기여도가 높고, 긍정적인 영향인식과 부정적인 영향 인식에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0.096, 0.083으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표 19] 구조모형 결정계수(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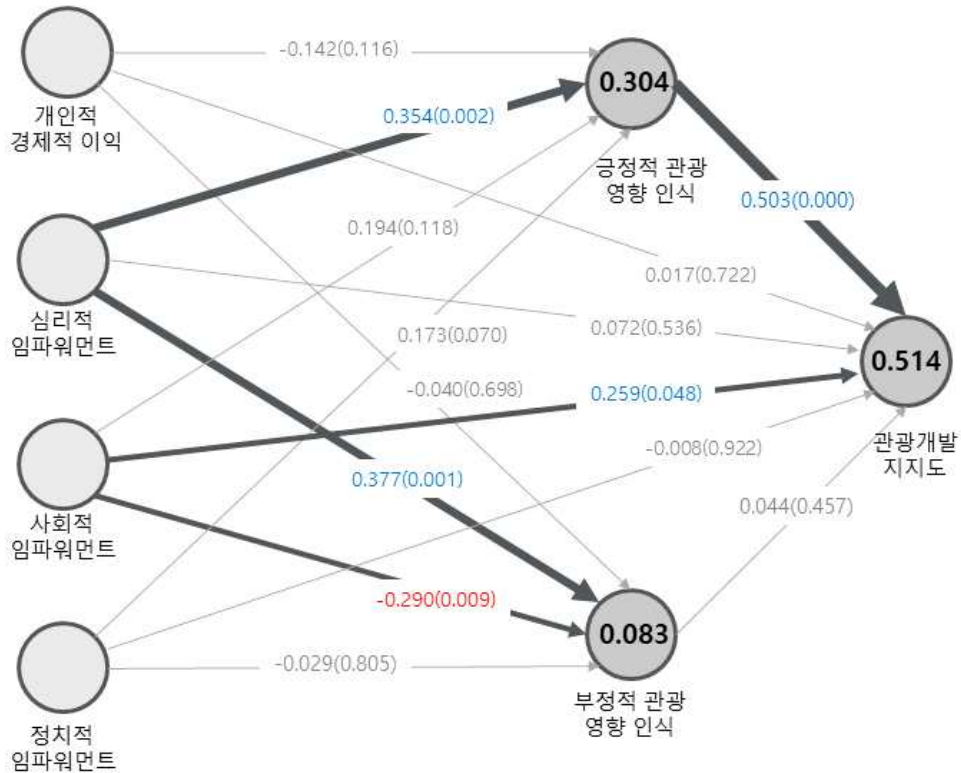
	R-square	R-square adjusted
관광개발 지지	0.514	0.493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0.304	0.285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0.083	0.058

[표 20] 구조모형 효과크기(f^2)

	관광개발 지지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관광개발 지지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0.358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0.004		
개인적 경제적 이익	0.000	0.023	0.002
심리적 임파워먼트	0.005	0.096	0.083
사회적 임파워먼트	0.060	0.025	0.043
정치적 임파워먼트	0.000	0.032	0.001

3. 가설 검정 결과

경로 계수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martPLS 4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적용하였다. 부표본(Subsample)의 수를 5000개로, 유의수준을 5%로 설정하고 검정한 결과 14개의 경로 중 5개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각 경로는 경로계수의 값을 기준으로 강조 표시됨

** 경로계수가 양의 값이면 푸른색, 음의 값이면 붉은색으로 표시됨, 경로계수 (p-value)

[그림 5] 연구모형 분석 결과

가설 검정 결과 개인 경제적 이익의 경우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을 모두 높게 인식하였다. 사회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을 작게 인식하였다. 정치적 임파워먼트는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않았다. 긍정적인 관광의 영향에는 근소한 차이(P-Value: 0.070로 유의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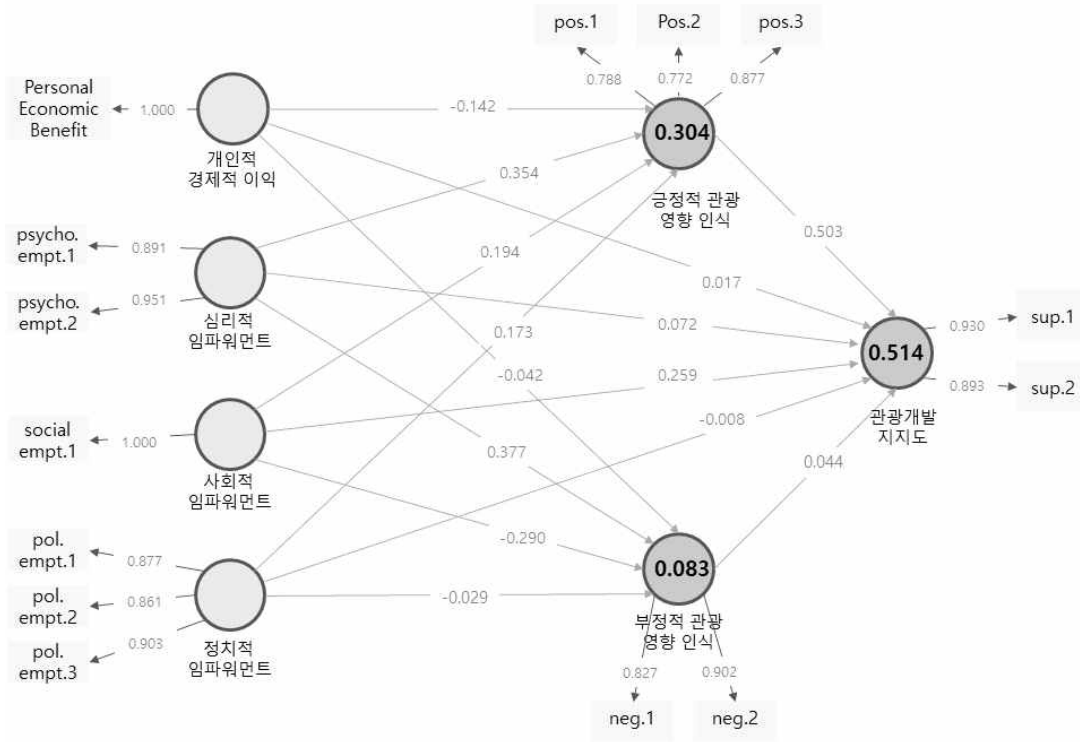
않게 나타났으나 양의 방향성을 보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느낄수록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영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21] 가설 검정 결과 요약

가설경로 (a->b)		경로 계수	표준 오차	P 값
a	b			
개인 경제적 이익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0.142	0.090	0.116
개인 경제적 이익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0.042	0.102	0.683
개인 경제적 이익	관광개발 지지	0.017	0.059	0.772
심리적 임파워먼트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0.354	0.116	0.002
심리적 임파워먼트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0.377	0.117	0.001
심리적 임파워먼트	관광개발 지지	0.072	0.116	0.536
사회적 임파워먼트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0.194	0.124	0.118
사회적 임파워먼트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0.29	0.111	0.009
사회적 임파워먼트	관광개발 지지	0.259	0.131	0.048
정치적 임파워먼트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0.173	0.096	0.070
정치적 임파워먼트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0.029	0.117	0.805
정치적 임파워먼트	관광개발 지지	-0.008	0.082	0.922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관광개발 지지	0.503	0.072	0.000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관광개발 지지	0.044	0.059	0.457

*진하게 표시된 행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냄

매개 효과를 파악한 결과 사회적 임파워먼트만이 긍정적인 영향 인식을 매개로 관광개발 지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긍정적인 영향 인식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를 가졌다.



[그림 6] 측정변수 외부가중치/적재치 및 경로효과 분석

[표 22] 경로 계수 결과 요약

경로	경로 계수	표준 오차	P 값
개인적 경제적 이익 →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 관광개발 지지	-0.071	0.049	0.144
심리적 임파워먼트 →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 관광개발 지지	0.178	0.067	0.008
사회적 임파워먼트 →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 관광개발 지지	0.098	0.066	0.138
정치적 임파워먼트 →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 관광개발 지지	0.087	0.052	0.096
개인적 경제적 이익 →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 관광개발 지지	-0.002	0.008	0.811
심리적 임파워먼트 →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 관광개발 지지	0.016	0.024	0.497
사회적 임파워먼트 → 부정적 관광 영향 인식 → 관광개발 지지	-0.013	0.019	0.503
정치적 임파워먼트 → 긍정적 관광 영향 인식 → 관광개발 지지	-0.001	0.009	0.884

*진하게 표시된 행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냄

제 2 절 심층인터뷰 분석

심층인터뷰는 양적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질문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장남면 4명, 백학면 7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성 4명, 여성 7명이었다. 거주기간은 5년에서 60년이며 주민자치회장, 부녀회장, 협동조합 대표, 축제 담당 공무원, 사업 관계자 등 지역 거주민의 관광에 대한 지지 및 참여 형태,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되었다[표 23].

[표 23] 심층인터뷰 대상자 개요

구분	성별	거주기간	특징
A1	남	60년	장남면 주민자치회장
A2	여	40년	장남면 부녀회장
A3	여	40년	장남면 리단위 부녀회장
A4	여	35년	백학면 부녀회장
A5	여	11년	백학면 리단위 부녀회장
A6	남	6년	백학면 주민자치회 위원
A7	여	11년	면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기업 협동조합 대표
A8	여	5년	전 마을기업 협동조합 대표
A9	남	5년	귀향인, 마을여행사 협동조합 대표
A10	여	-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 담당 공무원
A11	남	-	연천군 출신, 백학 문화마을사업 관계자(3차년도)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13개의 상위범주와 26개의 하위범주로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24]와 같다. 개인적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 소득 창출의 기회보다는 지역 경제, 특히 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인의 농산물 판로가 발굴되는 등 개인적인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방문객을 개인의 소득원으로 연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 개인의 소득 창출이 어려운 것은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지역적 특성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으로 각종 토지이용 행위에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규제, 지리적 고립성, 정주환경의 낙후성은 인구 유출을 야기하여 이로 인해 고령화와 판매 시설 및 인프라의 부족 등 개인 소득 창출에 대한 장애요인과 관련된 응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심층 인터뷰에서 농업진흥지역 등 토지 규제로 토지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개업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과 이미지 관련하여 접경지역에서 수행되어온 안보관광에 노출되어 온 주민들은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안보관광 자원을 응답하였다. 또한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통일바라기’라는 축제 명을 명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생태자원과의 연계시 관광 만족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안보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역사, 문화 자원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는 평화관광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인식으로 보인다.

관광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관련하여 주로 주민자치조직을 기반으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었다.

참여 역량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거주민들의 응답에서 관광환경에서 국내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안보관광자원인 상승 전망대와 김신조 침투로 등은 모두 민간인통제선 북측에 위치하여 방문을 위해서는 군의 허가가 필수적임을 언급하였고, 안보교육관 관광

객 및 ‘관광버스 타고 오는 관광객’ 등과 같은 표현으로 단체 관광의 형태로 주로 관광이 수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 등 대외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접경지역의 특성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주민의 역량과 관련하여 통일바라기 축제에서 축제의 기획, 해바라기의 식재 등이 모두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높은 애착을 보이고 있었다. 대다수의 위원이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해바라기를 때에 맞추어 개화시키는 노하우를 가진 것에 대한 자긍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축제의 규모가 확대되며 방문객의 관리 및 행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리 및 행정에 대한 어려움은 접경지역의 인구 유출 및 고령화와도 유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젊은 층이 마을에 유입되기를 바라는 대답을 다수 보였다. 또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관광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대하여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한계로 여기고 있었다.

관광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에 관하여서는 지역이 가진 위치적인 한계와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다. 관광으로 인하여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환경 오염, 주차 및 교통 혼잡문제,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관광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생활시설의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대감에 이러한 불편이 참을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표 24] 심층인터뷰 결과

상위범주	하위범주	인터뷰 내용
지역 소득 창출	개인 소득 연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트 식당 편의점은 손님으로 인한 기대가 있으나 그 외 주민에게 이익이 체감되지 않음 - 지역에 사람이 많이 방문하기를 바랐으나 차량이 많고 농사를 주로 하는 사람이 많아 소득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음 - 주민들은 거의 농사를 지어 소득원으로 연결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지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어 아쉬움

	지역상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서 온 교육생을 대상으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식재료 판매 등으로 상권에 경제적 이익 - 축제로 인해 유입되는 사람들로 인해 음식점 방문객 증가 체감
개인 소득 창출	주민 소득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에서 시설을 건설하고 부녀회에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며 주민 소득 창출 - 지역주민 여행사 및 여행 상품 제작에 DMZ 자원와 호로고루 축제를 중점적 활용
	농사 생산물 판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판매 부스를 통해 수익성을 가짐 - 농산물 판매 농가들이 부스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한 뒤 판매를 원하는 농가들의 요청 증가
한계지역적 접근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위원회의 나이가 평균 60이상으로 젊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 - 장백회원(장청년회)이 무료로 음식 제공하고 지원하였으나 청년이 없어 지속 어려움 - 거주민 연령대가 높아 새마을 부녀회 등 협조가 어려움
	판매시설 및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에 의한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카페 등 시설 증가 필요 - 인프라가 열악하여 상수도가 아니라 지하수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 부스 운영에 어려움
	토지이용 규제 완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이다보니 카페 등이 잘 허가가 나지 않고 규제 완화 필요,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음 - 주변에 지역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절대 농지라 식당 등 허가가 어려움
안보관광	안보관광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 보존가치를 위하여 안보관광 수행 필요 -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분단국가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안보관광 수행이 필요
	접경지역 이미지의 관광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전방에 위치한 축제장소의 위치를 고려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통일바라기 축제로 명명하고 축제를 시작
평화관광으 로의 전환	관광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천은 북한과 가까워서 무서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광을 통해 직접 방문하면 생각이 변화할 수 있을 것임
	안보관광과 자연자원, 문화자원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인폭포, 호로고루 등 자연 문화 유산의 우수성 - 주로 안보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로고루나 경순왕릉 등 역사 문화자원, 생태환경 자원과 연계하여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 역사가 깊고 역사자원이 많은 곳으로 기억되기 바람 - 통일전망대, 김신조 투입로 등 안보관광에 더불어 역사박물관, 자연환경에 대한 칭찬 - DMZ 평화의 길, 호로고루, 경순왕릉을 방문하는 한국관광공사 코스도 운영되며 철책선 안쪽을 걸을 수 있는 경험 가능

	안보관광에 대한 익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십년간 안보관광 진행, 관광버스가 오는 것을 보며 관광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은 전쟁이야기 위주의 안보관광에 익숙해져있음 -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안보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한정적으로 새로운 시도에 익숙하지 않아 유도가 어려움
주민자치 조직 기반 활동	새마을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회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봉사 개념으로 관광에 참여함 - 자치위원회의 존재이유는 우리 면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우리 면 식구의 소득 창출을 바램
봉사차원의 공동체 활동으로 수행	개인 수익 창출아닌 봉사 차원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 식재 품삯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행사 당일 주차관리 인건비만 반영됨 - 농업 등 생업을 병행하면서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행
	공동체 가치 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 상생 방향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갈등 조장될 수 있음
국내 접경지역의 특수성	출입 통제로 인한 접근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승오피와 김신조 루트 등 안보관광자원이 핵심이나 민통선 위에 개방이 되어있지 않고 통제 하에 있어 관광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민도 출입에 통제를 겪었던 경험 공유 - 출입 통제가 사라지면서부터 식당 운영을 시작함
	외부 변수로 인한 관광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에서 안보관광을 운영하였으나 정권이 바뀌고 안보관광이 중단되고 안보교육관 시설 사용이 중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인해 단체 안보관광이 중단 -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관광이 중단
주민 주도 관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민간과 공공의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사이므로 주민자치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편이며 면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편임 - 투자유치과에서 연계하여 제주도 업체와 함께 호로고루 모찌를 출시, 시범사업으로 판매 - 주차시설, 화장실, 박물관 등 시설 개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수행
	지역 주민 중심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주도로 운영되며 높은 자부심과 애착을 가짐 - 해를 거듭해가면서 꽃 과종과 개화시기를 맞추는 것에 노하우가 생기고 자부심이 있음
참여 역량	운영 능력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기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음

부족 경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사 개업 시 서류행정상 어려움을 겪음 - 입장료를 시도하였으나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포기하였음 - 축제 규모가 커지면서 방문객이 많아 관리의 어려움
개발의 필요성	위치적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학면은 연천군에서도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파주와 인접해있음 - 장남면은 연천에서도 끝자락으로 연천군청과도 멀고 나오되어 가는 느낌에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주최함
	개발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에 가깝다는 이유로 발전에서 소외되고 인구유입이 감소 - DMZ가 발전에서 소외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 사업이 필요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관련하여 유네스코 지정시 개발이 불가하다 생각하여 주민들이 많이 반대, 군사지에 묶여있던 지역이라는 생각
부정적 영향	관광으로 인한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에 쓰레기 버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 - 외지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려 청소 등 관리비용 초래 - 큰 도로가 없고 인도가 따로 없고 마을 길에 차가 많이 다니다보니 원주민에게 불편 초래 - 외부인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불편 상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공간이 넓은데도 동네 창고 앞 등에 주차를 하여 불편하지만 손님이니 이해할만함 - 스스로도 관에서도 주민 자치가 스스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며 손님이 많이 오고 교통이 마비되며 불편해도 뿌듯함
긍정적 영향	관광으로 인한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길 이용으로 불편함이 있었으나 축제 장소로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될 예정 - 관광객이 증가한 뒤 식당이나 카페 등이 생겨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설이 증가됨

제 3 절 분석 결과 해석

본 장에서는 한반도의 접경지역 맥락에서 거주민의 개인적 경제적 이익, 심리적·사회적·정치적 임파워먼트 정도와 이것이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광 영향에 대한 인식과 관광개발 지지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양적 구조모형분석 결과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1) 개인적 경제적 이익

연구 대상지의 거주민은 관광개발로 인해 직접 얻는 이익이 저조하였고(리커트형 7점 척도 응답 평균 2.93),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익은 긍정적 영향 인식, 부정적 영향 인식,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의 초기 단계의 경우 거주민들이 개인적 이익 요인보다는 지역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같은 기대감에 따라 관광에 대한 지지를 보임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Nugroho & Numata, 2020; Vargas-Sánchez et al., 2009). 이러한 바와 같이 거주민의 인터뷰에서도 개인적인 관광에 대한 이익이 미미하더라도 거주민들은 여전히 관광으로부터 지역이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익이 유의하지 않게 도출된 것은 접경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고령화와 대다수 일차 산업으로 구성된 지역 산업 구성이 관광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하시킨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의 법령과 규제에서 기인한 정주여건 및 산업기반의 낙후성은 젊은 생산연령층을 유출되게 하고 지역에 높은 수준의 고령화를 야기하였다. 대상 지역의 거주민은 대다수 농업 등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차 산업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평균 연령이 높아 관광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관광으로 인하여 방문객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적인 소득의 창출원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좀 지역에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런걸 바라보고 시작을 했는데 차량이 많이 오고 이제 막 불편만 막 느끼고 아직까지는 소득이 별로니까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괜찮네. 좋다 했는데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한테 여기 농사만 다 짓고 장사할 줄도 모르고 소득 이런 게 좀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A1

“여기 지역분들이 이제 연령대들이 높으시다 보니까 예전처럼 새마을회(부녀회)나 이렇게 저희가 협조 받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A10

통일바라기 축제가 개최되는 호로고루 성 앞에는 연천군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판매하는 부스가 조성되어 있다. 호로고루가 관광지화되며 새로운 판로가 개척되어 축제 기간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특산물을 판매하는 부스가 생겨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산물을 가공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농가는 한정적으로, 관광객의 방문을 특산물을 판매할 기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에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A1] 또한 축제의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하기에도 장남면 내부에 가용할 수 있는 식당이 적고 부녀회도 연령이 높아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을 나타내었다.[A10]

2)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관광 개발로 인한 영향 인식과 관광에 대한 지지 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역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리커트형 7점 척도 중 평균 5.48의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관광 영향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부정적인 관광 영향 역시 높게 인식하였다. 심리적 권한 부여가 부정적인 영향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 연구(Boley et al, 2014)와는 다른 결과이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지역에 대한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Aleshinloye, 2022)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관광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모두 더 크게 인식

된다(Eslami et al. 2019; Huong & Lee, 2017). 거주민들은 평균 거주기간이 길고, 집안 대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6.25 전쟁 이전 번성하였던 지역이라는 지역 역사에 대한 자부심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부심이 관광의 긍정적 영향 인식, 부정적 영향 인식, 관광개발의 지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높은 자부심은 긍정적인 관광 영향을 매개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와 양의 관계를 가졌는데, 이러한 관계는 관광을 통한 외부인의 방문이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과거 안보관광은 전쟁, 보안, 안보 위협과 같은 이미지를 강조하며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은 전쟁의 잔해, 피해를 받은 지역으로 읽히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수행되는 접경지역의 풍부한 생태자원, 역사, 문화 자원으로의 대상 관광 자원 확대는 거주민들로 하여금 전쟁의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얼마나 ‘살기 좋은 장소인지’, ‘볼 것이 많은 특별한 지역인지’ 관광 활동을 통해 외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응답을 보였다.[A4,A5]

“그 전에 한 번 제가 와서 포탄 떨어진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전화 통화가 불통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연천이 무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평화롭고 공기 좋고 좋거든요. 그런 걸 좀 관광이라도 와서 한번 직접 보면 생각이 좀 많이 변하겠죠.” -A4

“뭐 지뢰나 이렇게 포탄이나 터지고 북한 초소 막 이런 것만 생각하던 데었는데 알고 봤더니 공기 좋고 물 좋고 볼 것도 많고 역사적인 것도 고구려 성도 다 있으니까 문화유적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와서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A5

그러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높은 영향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안보관광의 수행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거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진 지역의 문화를 관광객들이 특별하고, 감상함으로써 거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공유

하려는 의지를 높이는 것이다. 대상지에서 지역민들이 일차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관광 이미지는 안보관광자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 방안 중 가장 초기부터 정부에 의해 수행된 관광의 형태는 안보관광으로, 대상지의 거주민들은 전쟁과 관련된 자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 안보관광에 대하여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많은 거주민들은 안보관광에 대하여 익숙하였고, 우리 지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주요한 관광이란 곧 안보관광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접경지역 관광지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자연성, 문화관광성 보다도 안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관광객 만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신진옥, 2014). 즉 주민들이 가진 안보관광 경험이 관광객들이 인지하는 관광지 이미지와도 부합하며 이것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이외의 기존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관광이 수행될 경우 이에 대하여 낯설음을 느끼고 그러한 관광 형태에서는 충분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느끼지 못하여 거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지지를 얻기에 힘들 수 있다.

“부대 전쟁의 지게 부대를 다루더라도 지게를 쥐고 나가는 남편 그 뒤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여성의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먹고 사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지금 전쟁 쪽지로만 다뤄지고 있잖아요.. 뒤에서 의식주 관련해서 여성 생활사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캐내려고 만날 계획인데 (이런 주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 버렸어 없어 이렇게 하고 얘기도 잘 안 하시려고 하시고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A11

백학문화마을 사업 관계자는 백학면을 거주민들의 삶을 예술문화적인 접근으로 풀어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거주민들에게 안보자원 기저의 일상적인 경험 및 생태에 대한 구술조사를 시도하였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기존에 수행된 안보관광을 벗어나는 시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공유하였다[A9]. 이러한 특정한 형태의 관광에 대한 익숙함은 향후 대상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 교육과 같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접근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사회적 임파워먼트

구조모형 분석 결과 사회적 임파워먼트는 부정적 관광 영향의 인식에 부의 영향을 가졌다. 사회적 임파워먼트는 관광을 통한 지역사회에의 소속감 증진을 의미한다. 대상지의 거주민들은 높은 수준(리커트형 7점 척도 중 평균 5.06)의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응답하였다.

대상지역에서 수행되는 관광활동의 다수가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 사업, 마을기업 등의 활동과 같이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조직되거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부녀회 등 주민자치조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관광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장남면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지역 축제를 주최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백학면의 경우 새마을 부녀회라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관광 산업에 참여하게 되거나, 기존 거주민 및 귀향·귀농인들이 마을 여행사를 운영하고 인근 지역을 연계하여 직접 해설사로 활동하는 형태 및 이주여성들과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형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을 위해 기여함을 통해 지역주민으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권한부여는 관광으로 인한 이익이 도로와 같은 지역의 공공 인프라 개선과 같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함에 적용될 때 더 높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Aghazamani & Hunt, 2017). 주민들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일종의 지역의 낙후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지역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으로 인식하는 대답을 보였다.[A2, A10]

“그냥 여기 도움이 됐으면 마을에 발전되고 도움이 되고 상권도 보호가 되고 그래야 되겠다고는 생각해요. 저기 면이 발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마을 상권의) 장사도 잘 되면 좋겠다.

“ -A2

“우리 장남면 식구에 이제 좀 더 치중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여기 식당도 네 군데 그렇게밖에 안 되고 또 당신들이 있는 존재 이유가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라고 생각하시고”-A10

연천군 백학면의 부녀회원들은 2007년부터 학마을 식당을 운영하면서 제1땅굴 및 상승OP등 안보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군과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던 안보교육 프로그램 방문자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안보교육관 숙박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의 주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이를 독거노인 반찬배달, 이웃돕기 후원성금 기탁 등 군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이운안, 2019) 또한 연천 통일바라기 축제의 주최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면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직접 모종을 식재부터 행사 당일의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사 기간 동안의 지역주민이 수행하는 주차 관리에 대한 면 차원에서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거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봉사와 같은 차원에서 관광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관광 현상의 참여가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봉사”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경제, 지역의 발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강조되다 보니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응답을 보이기도 하였다.

4) 정치적 임파워먼트

정치적 임파워먼트는 긍정적인 영향 인식, 부정적인 영향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임파워먼트는 선행연구에서 상반된 영향을 보인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거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고(Boley et al., 2014), 긍정적인 영향인식에는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부정적 영향 인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정승훈, 2019). 이러한 상반된 영향은 관광에 대한 경험 정도, 거주민에게 부여된 정치적 역량의 정도 등 연구 대상지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Strzelecka et al.(2017)은 과거에 정부 주도의 관광개발로 인한 참여의 수준이 낮은 역사적인 맥락이 거주민의 정치적 역량과 관광에 대한 지지 사이의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였다.

거주민들이 관광개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 개발과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참여 역량을 개발하는 제도적 노력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보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수행된 사업이 공동체 사업의 촉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러한 활동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는 2014년 1월 연천군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축제로 장남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최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장남면에서 행정적 지원 및 일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 자치위원회가 주최한다는 점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애착을 두고 있음에도 그 규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방문객 관리에 있어 역량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이번에는 이제 입장료를 한번 받아볼까 추진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기에는 힘들더라고 우리는 또 다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이라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사전 예약을 하고 뭐고 딱 그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중략)...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전부 나이들이 많아서 평균 60이 넘어요. 있는 젊은 사람도 줄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금 어렵지.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도 내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A1

또한 입장료를 받아 그 일부를 특산물 판매 할인 쿠폰 등으로 되돌려주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려다가도 그를 위해 수반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껴 시도하지 못하였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거주민 대다수가 농업, 목축업 등 관광과는 관련이 없는 생업을 따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연령대가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녹록치 않음을 밝혔다[A1].

“우리 시골은 관광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 하고 싶어도 못한 게 관광업을 하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야. 농사 짓

는 건 자기 혼자 내면 되는데 이거는(여행사) 혼자 자기가 혼자 못
차려요...(중략)... 여행업을 하려면 여행업 법에 따라서 몇조 몇 항해
가지고 여기 자본금은 얼마여야 되고요 부동산이 있어야 돼 여기 그
다음에 회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라고 그러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준비를 한 반 년 해가지고 했어요.”-A6

이러한 인터뷰는 거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 역량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을 보인다. 백학면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동의 이면에도
연천군에서 수행한 ‘DMZ주민아카데미’의 운영이 있었다. 연천군은 2012
년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유보 이후 3년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도모하기 위해 DMZ주민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아침해 여행사는 주민
아카데미에 참여한 뒤 2년여간 전시할 물품을 모아 2017년 백학마을역사
관을 개관하였다. 역사관을 조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자체적인 교육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마을 해설사 6인을 양성하여
이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예비 마을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사
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류작성 및 행정적 역량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였다[A4]. 즉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
역량 사업을 지속하면서도, 접경지역의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행정적 지
원 등 적정한 후속적인 역량 개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을 시사
한다.

5)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인식

거주민들이 인식하는 관광의 긍정적 영향은 인근 상권의 활력 및 농산
물 판로 개척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로 등 공공시설의 확장,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요인이 인식되었다.
한편 접경지역의 낙후성, 개발 소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관광에 대한
개발 유치를 보상 차원으로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A5].

“많이 낙후됐잖아요. 여기가 연천니 인구도 감소를 많이 하고 왜냐
하면 발전되는 게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가까이 한다는 이유로
발전을 시키지 못하니까 ...(중략)...이 지역이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
고 좀 문화적인 혜택이 필요해요 DMZ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관광을 더 활성화시켜주다든가 더 그거로 인한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5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쓰레기 문제와 교통혼잡과 같은 물리적 요인이 주로 인식되었다.[A6]

“내가 4, 5월 한참 논에서 일하고 밖에서 일할 때 그 사람들은 한참 놀러 다니기 좋을 때거든 다 좋은데 쓰레기 이쪽 논 귀퉁이 저기 저기 어떤 사람은 쉬러 와서 거기다 놓고 가 얼마나 보기 싫고 얼마나 그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 -A6

구조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관광개발 지지에 양의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했다.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한진성, 문현철, 윤지환(2018)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관광영향 인식과 관광개발 지지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사회, 문화적 부정적 영향 인식은 관광개발인식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 환경적 부정적인 영향 인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나이아가라 지역 및 중국 역사문화마을 Qingyan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부정적 영향인식과 관광개발 지지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Nunkoo & So, 2016; Qin et al., 2021). 이러한 결과는 관광지 거주민들이 관광으로 인한 지역의 다른 변화가 관광으로 인한 불편을 상쇄하여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인식하게 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Mansfeld & Ginosar, 1994).

“우리는 스스로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다른 데는 이제 무슨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렇게 해주고 주민이 돕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 자체가 스스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손님 많이 이제 오고 여기 교통이 마비되잖아요. 그 기간에 그럴 때는 이제 좀 불편해도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려졌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어요.” -A1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의 배경이 되는 호로고루는 해바라기가 개화하는 9월 한 달간 약 25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집계('21 기준)되는데, 마을길을 통해서 접근할 수 밖에 없어 축제기간이 되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호소된다. 그러나 축제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과 같은 요인들이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A1]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인 연천군 고랑포구 일대 장남면과 백학면을 대상으로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여 거주민의 관광개발 지지도에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접경지역은 안보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안보관광이 수행되어 오던 지역으로, 최근 평화관광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하는 관광자원 및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안보관광자원과 생태관광자원, 지역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연계 및 지속가능한 관광의 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한 집단인 거주민을 참여시키는 지역 중심적 개발의 중요성이 더해졌으나, 접경지역 거주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접경지역 관광 개발에서 거주민은 경제적 소외에 따른 개발욕구에 대한 의지 측면과 약한 역량 부분에서 한정적으로 조명되어왔다. 이에 거주민이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느껴 임파워먼트 관광개발을 지지하는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가치관, 신념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풍부하게 해석하였다.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거주민의 참여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현재 거주민이 느끼고 있는 임파워먼트가 어떻게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지 확인한다면 거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거주민의 경제적 욕구 및 가치적 동기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세가지 차원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임파워먼트가 관광개발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개발에 대한 거주민의 태도에서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거주민들은 지역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할 것을 기대하고 자긍심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보관광의 오랜 수행으로 인해 해당 관광형태를 벗어나는 관광자원을 도입할 경우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은 관광에 따른 영향 인식과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관광개발로 인한 외부 방문객의 유입을 개인적인 수익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역량의 부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거주민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적 임파워먼트는 관광에 따른 영향 인식과 관광개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정치적 임파워먼트에는 거주민의 참여 역량 및 그를 실현해줄 거버넌스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랜 정부주도적 관광 정책 수행은 거주민의 참여를 소극적인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여야 하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역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있어 참여를 촉발할 뿐 아니라 거주민 참여 역량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은 관광개발의 지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로, 관광개발 초기의 경우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접경지역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접경지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에 참여 혹은 지지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임파워먼트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즉 접경지역의 거주민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관광개발을 지지하고, 참여하게 되는지 사회교환이론과 임파워먼트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거주민들이 관광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관광개발에 대하여 지지함을 결정함에 있어 자부심, 소속감 등 비경제적 임파워먼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인 연천군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대안관광을 기조로 관광개발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랑포구 일대는 고랑포 일대의 하드웨어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주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축제 및 마을 여행사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등 소프트웨어 자원의 존재로 균형있는 관광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내용은 군 관광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거주민들의 관광 참여에 대한 동기, 그리고 참여 역량의 수준 및 어려움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이 지역에서 수행되는 관광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거주민들은 관광을 통해 전쟁의 피해지역,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자신들의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었다. 한편 안보관광은 접경지역에서 오랜 기간 수행되어 온 관광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관광에 참여하는 거주민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거주민들 역시 안보관광의 수행을 접하면서 해당 형태의 관광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였다. 연천군에서 자연,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평화관광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관광형태에서 벗어난 시도를 할 시에 그 눈높

이에 맞는 교육 및 설명을 동반하여야 거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광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거주민들을 위하여 관광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및 참여 기회의 마련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연천군 고랑포구 일대 두 개 면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탐색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전체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관광개발 지지도와 임파워먼트간 관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어느 광역지자체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수도권과의 거리, 관광 정책이 상이하여 여건이 다를 수 있으며, 경기도 내의 접경지역일지라도 상이한 접근 시각을 가지고 있어(박경만, 2021) 향후 다양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거주민의 임파워먼트와 관광개발 지지에 대한 연구결과의 확증을 위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거주민을 관광에 대한 지식수준이나 참여 정도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주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임파워먼트에서 관광에 대한 지식수준의 중요성이 논의된 바 있으므로(Joo et al., 2020; Weng & Peng, 2014) 거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른 영향 관계를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관광이 DMZ 관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에 따라 거주민의 환경 인식이 관광개발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접경지역의 주요 개발 목표인 지역 개발, 생태보존, 통일평화의 기반 마련 거점 측면에서 통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Aghazamani, Y., & Hunt, C. A. (2017). Empowerment in Tourism: A Review of Peer-Reviewed Literature. *Tourism Review International*, 21, 333-346.
- Asmelash, A. G., & Kumar, S. (2019).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ourist satisfaction and sustainable heritage tourism development in Tigray, Ethiopia. *Heliyon*, 5(3), e01335.
- Blau, P. M. (1964). Justice in social exchange. *Sociological inquiry*, 34(2), 193-206.
- Boley, B. B., McGehee, N. G., Perdue, R. R., & Long, P. (2014). Empowerment and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Strengthen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rough a Weberian le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49, 33-50.
- Boley, B. B., Maruyama, N., & Woosnam, K. M. (2015). Measuring empowerment in an eastern context: Findings from Japan. *Tourism Management*, 50, 112-122.
- Chin, (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295(2), 295-336.
- Creswell, J. & Clark, V. (2018).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Cohen, J. (1992). Statistical power analysi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3), 98-101.
- Cole, S. (2006). Information and empowerment: The keys to achieving sustainable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4(6), 629-644.
- Dolezal, C. & Novelli, M. (2022) Power in community-based tourism: empowerment and partnership in Bali,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30:10, 2352-2370, DOI: 10.1080/096669582.2020.1838527
- Butler, R. W. (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1), 5 - 12. doi: 10.1111/j.1541-0064.1980.tb00970.x
- Eslami, S., Khalifah, Z., Mardani, A., Streimikiene, D., & Han, H. (2019).

- Community attachment, tourism impacts, quality of life and residents' suppor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6(9), 1061-1079.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 Gautam, V. (2022). Why local residents support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17.
- Gannon, M., Rasoolimanesh, S. M, & Taheri, B. (2021). Assessing the mediating role of residents' perception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60(1), 149-171.
- Gursoy, D., Chi, C. & Dyer, P. (2010). Locals' attitudes toward mass and alternative tourism: The case of Sunshine Coast, Australia. *Journal of travel research*, 49(3), 381-394.
- Gursoy, D., & Rutherford, D. G. (2004). Host attitudes toward tourism: An improved structural mod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3), 495-516.
- Hadinejad, A., D. Moyle, B., Scott, N., Kralj, A., & Nunkoo, R. (2019). Residents' attitudes to tourism: A review. *Tourism Review*, 74(2), 150-165.
- Hair, J. F., Ringle, C. M., & Sarstedt, M. (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152.
- Hair, J. F., Risher, J. J., Sarstedt M., & Ringle, C. M. (2019). When to use and how to report the results of PLS-SEM. *European business review*, 31(1), 2-24.
- Hair, J. F., Sarstedt, M., Hopkins, L., & Kuppelwieser, V. G. (2014).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An emerging tool in business research. *European business review*, 26(2), 106-121.
- Hair, J. F., Hollingsworth, C. L., Randolph, A. B., & Chong, A . Y. L. (2017). An updated and expanded assessment of PLS-SEM i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 Huong, P. M., & Lee, J. (2017). Finding important factors affecting local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in Ba Be National Park, Vietnam.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13(3), 126-132.
- Joo, D., Woosnam, K. M., Strzelecka, M., & Boley, B. B. (2020). Knowledge, empowerment, and action: Testing the empowerment theory in a tourism contex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8(1), 69-85.
- Kalberg, S. (1980). Max Weber's types of rationality: Cornerstones for the analysis of rationalization processes in hist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5), 1145-1179.
- Kock, N. (2015). Common method bias in PLS-SEM: A full collinearity assessment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Collaboration (ijec)*, 11(4), 1-10.
- Kock, N., & Lynn, G. (2012). Lateral collinearity and misleading results in variance-based SEM: An illustration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13(7), 546-580.
- Lee, TH. (2013). Influence analysis of community resident suppor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34, 37-46.
- Lee & Jan (2019). Can community-based tourism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Evidence from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sustainability. *Tourism Management*, 70, 368-380
- Nugroho, P., & Numata, S. (2022). Resident support of community-based tourism development: Evidence from GunungCiremai National Park, Indonesia.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30(11), 2510-2525.
- Nunkoo, R., & Gursoy, D. (2019). Political trust and residents' support for alternative and mass tourism: an improved structural model. In *Tourism Planning and Development* (pp. 12-33). Routledge.
- Nunkoo, R., & Ramkissoon, H. (2010). Small island urban tourism: a residents' perspective. *Current Issues in Tourism*, 13(1), 37-60.
- Nunkoo, R., Smith, S. & Ramkissoon, H. (2013). Residents' attitudes to tourism: A longitudinal study of 140 articles from 1984 to 2010.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1(1), 5-25.
- Nunkoo, R., & So, (2016).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Testing alternative

- structural models. *Journal of travel research*, 55(7), 847-861.
- Mansfeld, Y., & Ginosar, O. (1994). Determinants of local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tourism development in their locality. *Geoforum*, 25(2), 227-248.
- Martín, H. S., de losSalmonesSanchez, M. M. G., & Herrero, Á. (2018). Residents'attitudes and behavioural support for tourism in host communitie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5(2), 231-243.
- Maruyama, N. U., Woosnam, K. M., & Boley, B. B. (2016). Comparing levels of resident empowerment among two culturally diverse resident populations in Oizumi, Gunma, Japan.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4(10), 1442-1460.
- McGehee, N. G., & Andereck, K. L. (2004). Factors predicting rural residents' support of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2), 131-140.
- Park, S., Zou, S., & Soulard, J. (2023) Transforming rural communities through tourism development: an examination of empowerment and disempowerment processe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DOI: 10.1080/09669582.2023.2178446
- Pavlou PA., Liang, H., & Xue, Y. (2007).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uncertainty in online exchange relationships: A principal-agent perspective. *MIS quarterly*, 105-136.
- Perdue, R. R., Long, P. T., & Allen, L. (1990).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4), 586-599.
- Qin, X., Shen, H., Ye, S., & Zhou, L. (2021). Revisiting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he role of tolerance.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47, 114-123.
- Rapapport, J., Swift, C., & Hess, R. (1984) Studies in Empowerment, Prevention in Human Services, 3:2-3, 1-7, DOI: 10.1300/J293v03n02_02
- Rasoolimanesh, S. M., Ringle, C. M., Jaafar, M., & Ramayah, T. (2017). Urban vs. rural destinations: Residents' perceptions, community

- participation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60, 147–158.
- Ribeiro, M. A., Pinto, P., Silva, J. A., & Woosnam, K. M. (2017). Residents' attitudes and the adoption of pro-tourism behaviours: The case of developing island countries. *Tourism Management*, 61, 523–537.
- Ringle, C.M., Wende, S., & Becker, J.-M. (2022). *SmartPLS 4*. Oststeinbek: SmartPLS GmbH, <https://www.smartpls.com>
- Scheyvens, R. (1999). Ecotourism and the empowerment of local communities. *Tourism management*, 20(2), 245–249.
- Sharpley, R. (2014). Host perceptions of tourism: A review of the research. *Tourism Management*, 42, 37–49.
- Strzelecka, M, Boley, B. B. & Strzelecka, C. (2017) Empowerment and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in rural Central and Eastern Europe (CEE): the case of Pomerania, Poland,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5:4, 554–572, DOI: 10.1080/09669582.2016.1224891
- Strzelecka, M., Prince, S., & Boley, B. B. (2021). Resident connection to nature and attitudes towards tourism: findings from three different rural nature tourism destinations in Poland.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24.
- UNWTO. (2020). *TOURISM AND RURAL DEVELOPMENT*. <https://www.unwto.org/world-tourism-day-2020/tourism-and-rural-development-technical-note>
- Vargas-Sanchez, A., Valle, P., Mendes, J., & Silva, J. A. (2015). Residents' attitude and level of destination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ourism Management*, 48, 199–210
- Vargas-Sánchez, A., Plaza-Mejía, M. A., & Porrás-Bueno, N. (2009). Understanding residents' attitudes toward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ourism in a former mining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47(3), 373–387.
- Weng, S. & Peng, H. (2014). Tourism development, rights consciousness and the empowerment of Chinese historical village communities. *Tourism Geographies*, 16(5), 772–784.

- Woo, E., Kim, H., & Uysal, M. (2015). Life satisfaction and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50, 84-97.
- 강영애, 유광민, 김남조. (2012). 지역주민의 장소애착과 환경인식이 생태관광 영향인식과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4(4), 113-136.
- 강용석. (2021).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적용한 관광개발사업 모니터링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2021). 2021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 https://stat.gg.go.kr/statgg/kr/dataMng/PublicationForm.html?pub_seq=95
- 고선영. (2021). 제주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과 혼잡지각, 만족 및 관광개발 지지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55, 281-299.
- 국가기록원. (2023).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jsa.do> 판문점.
- 김상빈, 이원호. (2004). 접경지역인구의 이론적 모델과 연구동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117-136.
- 김선정,정은영. (2015). 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지식 및 건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8), 5394-5403.
- 김송이, 강영은. (2019). 오버투어리즘 지역 주민의 관광객에 대한 태도 형성 요인 연구-부산 감천문화마을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3(7), 69-83.
- 김영봉. (2017). 한국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접경지역통일연구*, 1(1), 37-76.
- 김지나. (2019). DMZ 접경지역의 진정성 재구성 과정 : 지역 자원 활용 공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서울.
- 김지나, 조경진. (2019). DMZ 접경지역 평화관광을 통한 지역 자원 활용의 특성 변화: 철원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3), 97-117.
- 김재학, 김성조. (2018). 사회교환이론에 기반한 지역축제의 사회문화적 편익-비용, 전반적 만족도, 지지의사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연구저널*, 32(7), 65-79.
- 김창환. (2020). 베트남 DMZ 관광의 사례와 한반도 DMZ 평화관광의 시사점.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0(2), 27-41.
- 김홍배, 김영봉. (2008). 남북한 평화증진을 위한 접경지역의 협력적 이용방안. *통일정책연구*, 17(1), 401-426.

- 노희경. (2019). 통일관광을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관광학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10), 59-78.
- 대한민국 정부. (1972).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 대한민국 정부. (198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 대한민국 정부.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1~1999)
- 대한민국 정부. (1999).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대한민국 정부. (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대한민국 정부. (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대한민국 정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박경만. (2021). DMZ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탐색적 연구: 파주·연천지역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6(4), 125-151.
- 박경열, 안희자. (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DMZ관광 이슈의 토픽 모델링 분석. *관광레저연구*, 31(4), 143-159.
- 박영철. (1981). 韓國 休戰線 隣接地域의 開發戰略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서울.
- 박은진, 여인애. (2018). 한반도 비무장지대 일원 정책과 연구의 변화 및 시사점. *환경정책*, 26(2), 19-45.
- 박종문, 안승혁, 김우창, 남궁혜진, 윤순진. (2019). 지역공동체의 숲 휴양치유사업 지지도 영향 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7(2), 123-155.
- 박주영, 오상훈. (2019).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과 관광객에 대한 태도 연구: 관광개발 지지의사 매개효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12), 21-43.
- 백재환, 김성민. (2018). 접경지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간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접경지역통일연구*, 2(2), 129-157.
- 손기웅, 문광춘, 최순미. (2011). DMZ 총람: 문화·관광 현황. 서울: 코리아DMZ 협의회.
- 신건권. (2018). (석박사학위 및 학술논문 작성 중심의) SmartPLS 3.0 구조방정식모델링 =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PLS-SEM) with SmartPLS 3.0, SPSS, G*Power, 도서출판

청람

- 신동주, 강유진. (2016). 지역주민의 애착도가 관광개발영향인식, 혜택,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폐특법대상지인 강원도 남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31(1), 113-129.
- 신애경, 이혁진. (2022). 접경지역의 안보관광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 강원 철원, 양구, 고성군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2(1), 84-95.
- 신진옥, 강주현, 정란수, 정철. (2014). 접경지역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제약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제약의 영향관계 비교. 관광레저연구, 26(5), 41-61.
- 안영배. (2018). 남북 공동 번영, ‘한반도 평화관광’으로부터. 한국관광정책, (74), 4-7.
- 연천군. (2019). 2030년 연천군기본계획. <https://www.yeoncheon.go.kr/ebook/ebookList.do?key=3623&Dir=0303000000&sort=rancode>
- 연천군. (2020). 연천군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https://www.yeoncheon.go.kr/ebook/ebookList.do?key=3623&Dir=0303000000&sort=rancode>
- 이상호. (2022). 관광지 주민들의 관광개발 지지에 관한 통합 모형의 실증. 관광연구논총, 34(1), 195-218.
- 이석호, 최창규. (2016). 관광개발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소현, 김병현. (2015). 안보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 관광진흥연구, 3(1), 67-83.
- 이운안. (2019). 연천군 백학면 새마을 부녀회, 학마을 식당 운영금 지역사회에 환원.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762>
- 이용규. (2018). DMZ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접경지역통일연구, 2(2), 77-127.
- 장모나. (2021). 지역사회 애착도와 관광영향 인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제주.
- 전명숙. (2019). DMZ 접경지역 도보관광 개발 방안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5(1), 145-154.
- 전익진, 두루미 월동지 연천 빙애여울 생태관광 2년만에 재개, 중앙일보,

- 2021.12.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360#home>
- 정광균. (2021). 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광정책의 변동과 관광자원개발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정광균, 김남조. (2021). 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광정책 변동의 경로의존성 분석. 관광연구논총, 33(3), 157-180.
- 정대영, 서정욱. (2022). DMZ 평화관광 추진의 쟁점과 과제, 경기연구원 정책브리프 2022-14. <https://www.gri.re.kr/web/contents/resreport.do?schM=view&schPrjType=ALL&schProjectNo=20220468&schBookResultNo=15125>
- 정대영, 한석호. (2021). 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모형 개발 연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1-142. <https://www.gri.re.kr/web/contents/resreport.do?schM=view&schPrjType=ALL&schProjectNo=20200513&schBookResultNo=14814>
- 정승훈. (2014). 제주밭담농업 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지도. 관광연구저널, 28(11), 5-23.
- 정승훈. (2019). 정치적 임파워먼트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 인식, 정부 신뢰, 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를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33(8), 47-64.
- 정유리, 정성문, 강신겸. (2017). 도시관광지 주민의 지역애착도가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광주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을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1(7), 21-38.
- 정은성, 정균영, 고영일. (2018). 수정된 RETS 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임파워먼트 척도 개발. 관광연구저널, 32(7), 111-126.
- 최성록. (2011). DMZ일원 국가사업에 있어 주민참여 현황과 과제. 지방정부연구, 15(1), 163-186.
- 통일부, '디엠지 평화의길 파주, 철원 구간 운영 잠정 중단, 2019.09.19. https://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634&category=&pageIdx=
- 한국관광공사. (2019). DMZ평화관광 가이드라인 개발 및 컨설팅 제안요청서. <https://kto.visitkorea.or.kr/viewer/view.kto?id=60807&type=bd>

- 한모니까. (2020). 1950년대~1960년대 민간인통제선(CCL)의 변화와 '민북(民北) 마을'의 형성. 북한연구학회보, 24(1), 59- 92.
- 한석호, 유은정. (2022). 지역주민의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적 교환이론과 장소 애착의 종합. 관광레저연구, 34(2), 63-82.
- 한승훈, 윤동환. (2020).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이관광개발 태도와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 어등산관광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9), 21-35.
- 한진성, 문현철, 윤지환. (2018). 제주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과 지속적 관광 개발 지지의사 간 관계에서 지역애착도의 조절효과. 관광학연구, 42(10), 93-109.
-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 - 66호, 2021.10.19.).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0651
- 황경후, 송상현, 정철. (2016).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인식과 효과인식이 지역 애착과개발지지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8(1), 105-132.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in border region at DMZ: A
case study of Yeoncheon-gun,
Gyeonggi Province

JiHye Ya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Maj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mong residents living in DMZ border area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DMZ border area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MZ border area development and the transition to the DMZ peace tourism paradigm, this study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border area tourism development and analyzed the

economic, psychological,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in these areas. Using a Mixed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a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 (PLS-SEM), which applied the Resident Empowerment through Tourism Scale (RETS) in order to measure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as well 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border area resident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residents of villages adjacent Golangpogu, Yeoncheon-Gun, and some participants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to gain rich interpretations of the fa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tor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social empowermen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sidents' perceived impacts from tourism,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specifically related to individual's pride and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by mediating the perceived positive impacts from tourism.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ourism development practitioners and planners to induc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from residents in border areas, where the necessity of promoting community based tourism is increasing under the DMZ peace tourism paradigm.

keywords : DMZ Border Area, Residents' perceptions, Mixed Methods Research, Social Exchange Theory, Empowerment,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PLS-SEM)
Student Number : 2021-20870